

# 나에게서 너에게로

글, 그림 최수정

매실나무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  
지원사업











나에게서 너에게로

-From I To U-



나에게서 너에게로

-From I To U-

---

# 목차

---

|                       |     |
|-----------------------|-----|
| 첫 번째 이야기, 나에게서 너에게로   | 13  |
| 두 번째 이야기, 비명 지르는 수도꼭지 | 69  |
| 세 번째 이야기, 잃어진 것들의 축제  | 105 |
|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을 지켜 줘    | 155 |
| 작가의 말                 | 195 |

우리 엄마와, 동생과, 이 책의 주인공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 가는 모든 주인공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에게서 너에게로



옛날 옛날에, 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정말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커다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괴물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괴물이 보일 때마다 손가락질하곤 했죠.

“너는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너무 커서 싫어!”

“너는 우리랑 달라!”



괴물은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며칠이 가고, 몇달이 가고, 몇년이 가고.

괴물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죽기 전에 숲의 모든 곳을 둘러보고 싶었던 괴물은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괴물은 숲에 버려진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안아든 그 순간, 괴물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일까!”  
괴물은 남은 삶 동안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 1. 첫 만남

# 1. 첫 만남

나는 만들어졌다.

인간들은 모든 것을 알고 그 아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원했고, 그것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나를 만들었다. 대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말하는 기관을 만들고, 스스로 생각하여 답을 낼 수 있도록 두뇌를 만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만든 결과, 어찌저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학교’라는 곳에서 흔히들 가르치는 말과 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먹고 마시고 소화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리, 돈의 흐름과 권력 체계,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무언가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까지. 그 모든 지식이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나다. 날 만든 인간들은 나를 만들면서 나를 걸작이라 칭송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많은 이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 그 때문에 나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다.

내가 ‘완성된’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아주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내가 막 눈을 떴을 때(엄밀히 말하자면 눈이 아니라 생체형 시각 담당 기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눈에 대응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겠다. 이하 머리, 귀, 입, 팔다리 같은 것도 동일하다.), 내 주변에는 온갖 난잡한 글과 글과 글, 그리고 날 만든 인간들 밖에 보이지 않았다. 눈을 한 번 깜빡였을 때, 입력해 둔 온갖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 전부 흘러들어오던 감각을 기억한다. 마치 지식이라는 커다란 공을 뇌에 억지로 쑤셔 박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난 눈을 뜨자마자 정신을 잃었고, 그들의 기준으로 100일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깨어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온갖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들의 언어와 지식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

서 내 결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마음’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사랑하는 것 따위는 그저 와닿지 않는 무언가일 뿐이다.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 또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나를 만들 때 감정보다는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감정이 없는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었다. 그야 당연하지, 감정이 없으면 인간의 심리나 도덕 같은 건 어떻게 이해할 건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결국 인간의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던가? 아무튼, 그들의 욕심과 부족한 이해로 인해 나는 한 순간에 부를 안겨 줄 금괴에서 쓸모 없는 짐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를 볼 때마다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나를 만든 본인들을 칭송하던 때를 기억한다. 내 결함을 알아차리고 나서 그 모든 기대가 박살난 표정으로 내게 온갖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던 때를 기억한다. 지식이 있으면 감정도 알아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정작 그것도 못하게 만든 건 그들이었는데

도 말이다. 결국 나는 폐기 처분이 결정되었고, 내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었기 때문에 나를 공개함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받기 싫었던 그들은 나를 아주 인적 드문 마을에 버리고 갔다. 떠나던 그들의 마지막 말을 기억한다. 내가 또 다시 저런 걸 만드나 봐라.

놀랍게도, 그 날 나는 감정을 하나 배웠다.  
그것은 증오였다.

내 몸을 만들어냈으면 그 몸을 잘 간수해 줘야지,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냈으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했어야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면 적어도 그게 쓸모없게 만들지는 말았어야지! 빌어먹을 인간들,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쓸모 없는 짐덩어리라고?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분명 내가 처음 눈을 뜨고, 아무 것도 모른 채로 어려운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만 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들이 밉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내 안에 자리잡은 검은 증

오가 스멀스멀 밀려나와 나를 검게 물들였고, 그 결과 나는 커다랗고 검은 괴물이 되어 버렸다.

막 폐기 처분이 완료되었을 당시에, 나는 마을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기도 했고, 효율적이지도 않았으니까. 군집이 있을 때, 군집 내 하나의 생명체만 보고 군집 전체를 판단하는 건 마치 씨앗만 보고 식물의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 그 판단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잘못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들 말고도 저 밖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들을 보게 될 거라고 했었다. 그게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이 내게 한 짓이 끔찍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폐기 처분이 되어 인적 드문 마을에 버려졌다고는 하지만, 그들에 대한 내 증오를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내비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내 몸은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에, 내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가령 장작을 몰래 패 놓는다든지, 물을

몰래 길어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머릿속에 이것저것 집어넣은 게 많으니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난데 없는 변화에 당황했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점차 적응해 갔고, 나중에 가서는 수호신이 이 마을에 내려왔다는 말까지 하며 보이지 않는 나를 칭찬하기 바빴다.

그 때 나는 감정을 하나 배웠다.  
그것은 뿌듯함이었다.

한 명이 할 일을 두 명이 하면 효율이 늘어난다. 두 명이 할 일을 네 명이 하면 더더욱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것뿐이었는데.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가만 보고 있자니 ‘마음’의 조각 하나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위화감에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었다. 증오라는 조각이 채워질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좀 더 그 얼굴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내 모습을 조금씩 드러낸다면 더 많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마을 사람들은 나를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고 있잖아. 조금만 다가가도 괜찮을 거야. 거진 10년 정도를 그렇게 안일한 생각

을 하는 데 쓰며 어떻게 하면 그들 앞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길어 둔 물과 쌀감을 집 앞에 놔 두고 있었다. 깊은 밤이라서 마을 사람들이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다. 원래 내가 숨어 지내던 곳에 가서 평소와 같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나를 보며 덜덜 떨고 있는 남자 한 명이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주저앉아 있었다. 곧이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일제히 나를 보며 비명을 질러 댔다. 몇몇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무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결국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떴다.

그 때 나는 감정을 하나 배웠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침 광장에 모여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던 모든 사실들을 털어 놓았지만 그들은 내 말에 수긍하면서도 내가 탐탁지 않다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찡그린 표정, 불만 가득한 목소리, 작지만 귀에 정확히 박혀 들어오는 자기들끼리의 속삭임들. 내가 만들어진 곳에서 겪었던 것처럼, 마을의 수호신에서 마을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건 한 순간이었다. 뭐가 문제였던 거지?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들의 일상에 침범해버린 것? 내가 방심한 나머지 그들에게 모습을 들킨 것?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긴 것? 뭐가 어찌 됐든 일단 나는 그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그간 도와준 것을 차마 외면하기 어려웠던 거겠지. 그래서 더더욱 그들에게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사고라도 났었어?”

“그렇게 생겼으면 자기 몸을 고쳐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 봤어?”

“너는 왜 그렇게 커다란 거야,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

차라리 나가 살라는 말이 더 편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는 말, 짓는 표정, 어설픈 친절, 배려의 탈을 쓴 위선, 너는 우리랑 다르다는 걸 내게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그들이 내게 보여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후벼파고 상처입혔다.

그 때 나는 감정을 하나 배웠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것과 더불어 편견 또한 내 안에 자리잡게 되었다. 역시 인간들은 다 똑같구나. 자기가 멋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쳐 버려. 결국 나는 그 길로 마을 외곽에 있는 숲 속에 틀어박혔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한다면 그대로 사라져 주는 수밖에 없지. 이미 비어 있던 마음의 틈으로 서릿발 같은 외로움이 들어찬다. 아파. 고통을 느끼는 감각 기관도 전부 만들어 뒀었구나. 아주 지독하게도 섬세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숲 속의 아주 깊은 곳까지 걸어들어간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아픈 현실을 마주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건지 모르겠다. 인간들과 같이 지낼 때는 그들의 기준에 맞춘 시간을 토대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계산할 수 있었고, 인간들과 얼마나 지냈는지도 어렵듯이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숲 속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 내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 그것도 39420번 정도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세지 않았지만. 아주 긴 시간동안 나는 내 안의 지식들을 꺼내 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나는 물질대사를 하지 않으니 먹을 필요도 없고, 동력은 전부 햇빛으로 보충하기에 기력 보전을 위해 잠을 잘 필요도 없고, 체온이랄 게 없으니 집 같은 것도 필요 없었다. 그저 숲의 한가운데에서 빼곡하게 들어찬 이 나무들처럼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날 만든 그들은 내가 오래도록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내 수명을 아주 길게 만들어 놨다고는 했지만, 이대로 있는다면 그들이 정해 둔 수명보다 일찍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산다’고 하지는 않잖아. 그래, 나는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겠지. 만들어진 목적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 만들어진 새로운 삶도 전부 완수해내지 못한 채로.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고요한 숲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왔다. 이제는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분명 이건 누군가가 우는 소리였다. 그것도 엄청 어린 인간의. 이런 인적 드문 숲의 아주 깊은 곳까지 소리가 들려 올 정도라면 분명 어린 인간이 숲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뜻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미친 인간들! 어린애 하나 간수 못하면 어찌자는 거야! 몸을 일으켰다.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몸이 굳어 버릴 일은 없었고, 그 덕분에 나는 빠르게 울음소리가 나는 곳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점점 찾아드는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을 때는 더 가관이었다. 어린애가 아니라 아기 하나가 천에 둘둘 싸여 숲 입구 쪽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의 시간 기준으로 어림잡아 100일 정도밖에 안된 아기가 말이다. 나는 또다시 분노에 휩싸였다. 어린애였다면 나름대로 참작의 여지가 있었다. 내가 마을에서 지낼 때도 숲 속에서 길을 잃는 아이들은 차고 넘쳤으니까. 그치만 애는 아직 말도 못 하는 아기라고. 애가 이 춥고 깨끗하지도 않은 숲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인간들이 이 아이를 버린 거라는 뜻이겠지.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쳤군, 하여튼 인간들은 항상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없다니까.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금 몸이 증오로 검게 물들어 가던 찰나, 웅웅거리던 꺾가

에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박혀들었다.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을에도 어린아이는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아기는 직접 본 적이 없었으니 나는 어떻게 이 아기를 다뤄야 할지 몰랐다.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아기를 안고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달렸다. 그 때는 그 아기가 인간이라는 사실보다 얽은 숨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집도 밥도 없었던 나는 그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한테 체온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가만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 나를 보며 눈을 깜빡이던 아기가 갑자기 활짝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인간들이 나를 볼 때는 항상 대놓고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날 나는 결심했다. 이 인간 아기가 스스로 걷고 생각하고, ‘마음’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만 여기서 돌보기로 하자. 최선을 다하자, 절대 저 밖의 인간들 같은 아이로 자라나지 않도록.

그 때 나는 감정을 하나 배웠다.

그것은 책임감이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괴물은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아이와 함께 지내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봄에는 숲 속에 피어난 꽃들을 구경하며 화관을 만들어 씌워 주었고,

여름에는 숲 속의 시원한 호수에 발을 담그며 물놀이를 했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물들어 가는 단풍들을 바라보며 낙엽놀이를 했고,

겨울에는 펄펄 내리는 눈으로 괴물의 몸만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괴물을 잘 따랐고, 괴물은 그런 아이를 보며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 2. 적응기

## 2. 적응기

아기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틈만 나면 울고, 자고, 먹는 것밖에 못했으니까. 눈을 감았다 뜨기만 하던 내 세 번째 삶에 새로운 생명이 들이닥치자 나는 내가 사는 환경을 바꾸어야만 했다. 아기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집을 만들고,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구하고, 아기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옷을 구하러 다녔다. 전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았고, 불을 피우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아기한테 먹일 게 없었으니까. 그치만 해야 했으니까, 내가 물어 두려고 했던 내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만들어 갔다. 천이나 쇠 같은 내 지식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인간들이 숲에 버린 쓰레기들 중 멀쩡한 것들만 골라서 깨끗이 고친 뒤 사용했고, 그 중에서는 아예 쓰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인간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졌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은 됐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아이한테 처음부터 정을 붙인 것도 아니었다. 울음소리는 시끄러웠고, 겨우 재워 놔도 등만 닿으면 잠이 깼었으니까. 그나마 시간이 지날 수록 자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나는 피로가 쌓이지 않는 몸이라는 걸 위안 삼아 의무감만 가지고 아이를 돌봤다. 먹을 건 어쩔 수 없이 숲 속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한테 여과 및 정수 장치가 없었으면 물조차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 아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덩어리가 진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됐고 아이가 먹을 채소들을 기르기 위해 재배 관련 지식도 최대한 활용했다. 그렇게 나와 아이의 집은 나름대로 사람 사는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아니, 구색이 아니라 내 환경은 장소가 숲의 깊숙한 곳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그냥 어른 인간 한 명과 아이 인간 한 명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 혼자일 때는 절대 하지 않으려 했던 인간들의 생활을 따라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렇다 쳐도 아이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결국에는 인간 세계로 돌려보내야 할 테니

까.

아이가 점점 커 감에 따라, 나는 가구와 옷 말고도 책을 여러 권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버려진 책들을 주워 오거나, 버려진 이면지들을 주워 와서 내 안에 있는 지식들을 책으로 만들기도 했다. 아이는 책도 잘 읽었다. 말도 나름 빠르게 배우는 편이었다. 가끔은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으니 문제 없었다. 올바르게 키웠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잘못되기 키우지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 잘 큰다면서 방임한 인간들,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틈만 나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던 인간들, 그래 놓고 진짜로 나가면 왜 나가냐고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었다.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너를 키운 건 나니까 내 말에 토 달지 말라고, 그럴 거면 지금까지 키운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으박지르는 모습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절대 인간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그리 되뇌며 아이가 울 때는 울지 말라고 다그치는 대신 다 울 때까지 기다려 주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지 말라고 혼내는 대신 왜 화가 났는지를 물어봤다. 물론 지식만이 다가 아니었기 때

문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난감했었는데, 어쩌다 옳은 방법을 찾으면 바로 학습해서 다음에는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서부터 우리는 많은 대화를 했고,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아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여러 감정을 더 많이 배웠는데, 증오와 두려움, 외로움과 분노 뿐이던 내 ‘마음’에 기쁨, 신기함, 편안함과 자랑스러움, 기대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차자 내 몸 구석구석에 있던 증오마저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는 굉장히 뿌듯했고, 어딘가로 사라지면 위험해진 건 아닐까 걱정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안심이 되었다.

봄에 핀 들꽃들의 이름을 알려 주며 꽃반지나 화관을 만들어 줄 때도, 무더운 여름에 산에서 이어지는 개울이나 집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물고기의 이름을 알려 주거나 발을 담그고 놀 때도, 지붕 위에 잔뜩 쌓인 낙엽들을 털어 낙엽놀이를 하던 가을날에도, 눈사람을 만들고 돌아온 뒤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난로에 불을 땀 때도. 내가 기억하는 건 그 때 너의 얼굴이었어. 꽃을 쥐고 화사하게 웃던 얼굴, 물을 튀기며 시원하게 웃던

얼굴, 낙엽비를 맞으며 깔깔거리던 모습, 구불거리는 머리칼 사이로 눈송이를 얹은 채 행복하다는 듯 지었던 미소. 그게 얼마나 예뻐는지 너는 모르겠지. 소중한 기억이 내 안에 자꾸만 쌓여 간다. 잊고 싶지 않아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면 보여 줄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바깥에 있는 마을의 한 남자는 숲 속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탐험을 끝나치고 돌아가던 중 무언가를 발견하고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연히 아이와 함께 숲 입구를 산책하던 괴물을 발견했던 겁니다.

겁에 질린 남자는 그대로 마을로 돌아가 외쳤습니다.

“괴물이다!!!! 괴물이다!!!! 깊은 숲 속에 사는 끔찍하게 생긴 괴물이 아이를 잡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 3. 이별

### 3. 이별

평범한 일상이었다. 동시에 아이가 슬슬 평범한 인간의 삶을 원하기 시작하는 요즘이기도 했다. 하긴, 책에서는 많은 인간들이 어울려서 웃고 울고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하니까. 그동안 아이는 식물들을 보듬고 동물들과 어울리며 자라 왔었다. 아이와 같은 사람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아이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나는 왜 다르게 생겼냐고, 왜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은 친구들이 없냐고. 내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었지만. 인간의 시간 기준으로 15살쯤 되었을 때에는 어릴 때보다 더 많이 싸우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아이는 나와 의 다름에서 비롯된 불안, 불만, 싫증 등을 쏟아내곤 했다. 나

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화를 냈었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서 나중에 가니 아이는 내가 그토록 증오해 마지않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다른 마을로 갔어야 했나? 폭언을 들을 걸 감안하고 마을로 돌아가 키워달라고 했어야 했나? 애초에 그 때 그 아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생각해 봐도 답은 도출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아직 아이를 인간세계로 돌려보낼 수 없다. 아직 아이는 자립할 수 없다. 저런 불안정한 상태로 인간세계에 나갔다면 분명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 오히려 내가 아이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가? 괴물인 나와 지내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인간들 사이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저런 생각이 끼어들었다. 머릿속의 지식을 쓰지 못할 정도로 두뇌가 과부화되는 느낌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감정 기복이 심했고, 나는 일단 최선을 다해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화를 내면 역효과가 날 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어긋난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도 불쑥불쑥 튀는 기분 때문에 숲 입구까지 갔다 온 아이를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내가 스스로 숲

속으로 걸어들어갔을 오래 전에도 마을 사람들은 위험하니 숲 속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다른 인간들이 이 곳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방심한 게 문제였다. 돌연 들려온 비명소리에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 보니 어떤 남자가 희게 질린 얼굴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떨고 있었다. 마치 나를 처음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던 과거의 어떤 남자처럼. 그 때의 기억이 지금의 장면과 겹쳐진다. 떨고 있던 남자가 몸을 돌려 달아난다. 쫓아가야 하나? 뱀뱀야 하나?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아이를 챙기는 게 먼저였기에 우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급선무였다. 마을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냐며 불안해하는 아이를 내가 훨씬 크니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고, 밤이 늦었으니 당장 오지는 않을 거라고 다독이며 폭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는 잠귀가 어두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우선 마을 사람들을 무력화시킨 뒤에, 천천히 대화를 나눠 보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을 막아 버려야지. 아이를 건드린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요즘 들어 다시금 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한 분노가 온 몸을 뒤덮는 게 느껴졌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알아서 가라앉힐 수 있어.

문제는 그걸 가라앉힐 틈도 주지 않고 저 멀리서 인간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부분에서 성실한 자식들. 바로 달려올 줄이야. 하긴, 지금은 그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을 테니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어린아이를 잡아간 흉측한 괴물로만 보이겠지. 그 때의 기억을 기록해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겨 뒀다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증명될 테니까. 그마저도 왜곡했다면 뭐, 인간이 인간처럼 행동한 것일 테고. 짧은 상념을 정리하고 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서부터 밝은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불을 직접 휘두르려는 것 같다. 처음 보는 괴상한 무기들도 정말 많았다. 인간들도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느끼고 싶지 않았는데.

밤이 깊어 갔다. 그런데도 전혀 어둡지 않았다. 주변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인간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를 내놓아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다, 이 끔찍한 괴물! 그러나 막상 내 앞에 도달했을 때는 그 힘찬 소리가 삼시간에 비명으로 바뀌었고, 절반 정도는 패닉에 빠져 여기저기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에 아이가 깰까 봐 길고 뾰족한 손가락을 세우며 그들이 입을 다물

도록 부탁했지만, 남아 있던 인간들은 그것을 공격 의사로 받아들인 건지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식의 보고가 쉽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며 튼튼하게 설계되었던 내 몸도 뭘지 모를 무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들 중 제일 뒤에 있던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갈색의 곱슬머리, 둥근 눈, 갈색 눈동자, 작은 코. 아이와 똑같이 생겼다. 네가 그 때 아이를 버린 사람이구나.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나는 또 다시 분노했다. 그러나 상처 때문에 분노조차도 얼마가지 못했다. 가만히 내 눈을 보던 여자는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이를 돌려보내 준다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 먼저 달려와서 건드린 게 누군데. 게다가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아이가 우리들 사이에 잘 섞여들 수 있도록 정을 완전히 떼게 하라는 협박까지 받았다.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저들은 나를 살려 주지 않을 것이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방치당한 상처의 악화로 인해 죽느냐, 제안을 거절하고 지금 여기서 죽느냐.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나는 생각했다. 아이를 지금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놓아 줘야 한다고. 내 친구들은 왜 나랑 다르게 생겼냐는 아이의 물음을 기억한다. 나도 인간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는 아이의 외침을 기억한다. 인간도 아닌 당신이

뭘 아냐는 아이의 분노를 기억한다. 아이가 클 때까지만 돌보겠다고 다짐해 놓고 커서도 곁에 있어 주길 바랐던 내 욕심을 떠올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여기서 놓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아이는 괴물의 집착을 받은 불길한 아이로 여겨져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멋대로 아이를 데려와 키운 내 이기심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리 생각하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자는 아이를 밖으로 데려오면 알아서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줬다. 슬픔이 목구멍을 때렸다.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나는 분노의 감각을 끌어올리며 최대한 정이 떨어질 법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집으로 들어갔다. 깊게 잠들었을 게 분명한 아이가 거실에 나와 있었을 때는 약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고 묻는 아이에게, 나는 만들어 둔 정 떨어지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인간들이 집 앞으로 찾아왔다고,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넘기라고, 그래서 너를 팔아넘겼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아이에게 쉬지 않고 쏘아붙였다. 평소에도 이렇게 사는 게 싫다고 했지 않냐고, 인간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그동안 인간인 너를 데리고 있는 게 끔찍이도 싫었다고. 내가 내뱉은 말이 다시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이의 ‘마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내 ‘마음’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금 밖에 인간들이 있으니 인간들과 함께 가고 싶으면 빨리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내가 쫓아내겠다고 외쳤다. 그 순간 아이는 내가 여태까지 봤던 표정 중에 제일 괴롭고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잔뜩 흘리며 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인기척이 멀어지고, 주변에 남은 건 그 아이의 흔적과 고요함 뿐이었다. 천천히 집 안을 돌아보았다. 아이가 쓰던 물건, 아이가 입던 옷, 그 모든 것에 아이와의 기억이 가득했다. 금이 가던 ‘마음’이 산산조각났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눈이 아프도록 밝던 주변은 어느 새 어두워져 있었다. 숲의 입구까지 미친 듯이 달렸다.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 때 나는 감정을 하나 배웠다.

그것은 그리움이었다.

다정하게 내 품에 안겨 오던 아이는 이제 없다. 함께 일상을 나누며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나갈 기회도 이제 없다. 품에 남은 것은 날것의 그리움, 아득한 후회. 그러지 말걸. 뱃모르는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사실을 멋대로 통보하고, 상황 파악이 다 되지 않은 아이에게 빠른 선택을 강요하지 말걸.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줄걸.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이가 쫓아왔다. 말도 못 하던 시절의 아이, 작은 눈을 깜빡이며 나를 올려다 보던 아이, 행복하게 웃던 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의 아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다. 아이가 말한다. 그러지 말았어야지. 끝내 나는 무너져내렸다. 나무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달빛 아래, 내 ‘마음’의 조각이 슬픔으로 물들어 서서히 사라져 갔다. 마침내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돌아간 ‘마음’의 구멍에서 온 몸을 꿰뚫는 듯한 고통이 휘몰아쳤다. 아, 그래. 이게 내 마지막이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뺨 뚫린 ‘마음’ 구멍에 한 조각의 마음만이 남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인간들에게 상처 입은 괴물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고,

홀쩍 커진 아이가 숲으로 찾아왔습니다.

깊고 깊은 숲 속, 썩어서 무너져 버린 집 앞에서,

아이의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 굳어 있는 괴물을 한참이나 바  
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 4. 남은 것

## 4. 남은 것

제일 첫번째의 기억은 캄캄한 어둠,  
그 두 번째의 기억은 깊은 숲 속,  
그리고 그 다음은 커다란 무언가.  
나는 괴물의 손에 길러졌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중요하지도  
않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때부터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존재는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었다. 온 몸이 검은색으로 물든,  
거대하고, 날카로운 손을 가진 무언가. 그를 보면서도 딱히 무  
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너무 많이 봐 와서 익숙해졌나 보다.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이 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밖에 없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나도 그와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한 번 그가 어디선가 거울을 가져오자 내가 책에서 봤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그 순간까지만 해도 ‘다름’이라는 게 그렇게 신경쓰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인간들에게서 버려졌다는 건 책을 보고 어렴풋이 추측한 것이었고, 이 추측이 맞다면 그는 버려진 내가 죽지 않도록 돌보았다는 뜻이니까. 이 추측이 아니더라도 그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납치해 온 거였으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에 없었겠지. 이름 모를 들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던 그를 기억한다. 호수 안을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의 이름을 알려 주던 그를 기억한다. 심심해 질 틈도 없이 내 위로 낙엽비를 잔뜩 뿌려 주던 그를 기억한다. 열심히 만들었던 커다란 눈사람을 그 긴 손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던 그를 기억한다. 누가 뭐래도 그는 내 보호자이자,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렇게 행복한 삶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던 ‘다름’에 대한 것이 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동물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서로서로 모여 자라는 식물들에게서, 하늘을 올려다 보면 늘

보이던 꼭대기의 수줍음에서. 내가 이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리게 된 것이다. 15살 정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기분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서 이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걷잡을 수 없어졌고, 그와 싸우는 날도 늘어나게 되었다. 드물게 인간 이야기에 언성을 높이는 그의 행동에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 때를 제외하면 그는 내 말을 들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옥해서 막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게 버릇이 되어 버렸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그저, 나도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인간다운 삶을 동경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부정할 수는 없었겠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살라고 해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는 게 정말 많았고, 수업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 줄 테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다.

그 날도 그랬다. 또 다시 막말을 내뱉고, 내가 한 말에 내가 상처받아서 숲 입구까지 일탈을 겸해서 산책을 나왔었고, 그가 나를 달래서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다. 돌아가는 길에, 이번에는야말로 제대로 사과하고 진심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 볼 생각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 남자의 비명소리만 아니었더라도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

데.

나는 그 날 인간을 처음 봤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책에서 봤기에 그 사람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에서 본 남자의 특징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서 처음엔 좀 헛갈렸지만. 처음 든 생각은 ‘뭐야?’ 였고,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시끄러워.’ 였다. 한 마디로, 생각보다 별 감흥이 없었다는 소리다. 그 남자가 도망갈 때도, 이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내 얘기만 할 줄 알았지, 그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마을이 있는지조차 몰랐었다. 그냥 어렴풋이 인간들의 세계라고 상상만 했을 뿐. 시끄러운 비명소리 때문에 인상을 찌푸린 것을 그는 불안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건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태도로 나를 집까지 이끌어 주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으로 인간을 보는 거였는데도 묻고 싶은 게 없었다. 그저 그가 무서워서 인간 세계로 도망갔겠거니, 생각했었지.

그 남자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떼거지로 몰려왔던 그 때, 나는 자고 있지 않았다.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상태였으니까. 고함과도 같은 함성이 들려 온다, 곧이어 비명소리로 물들어 가기 시작한다, 달려가는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곧이어 들려온 괴로운 듯한 그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곧바로 내 방을 나와 문을 열려고 했는데, 돌연 주변이 조용해졌다. 과격한 소리들이 한 순간에 사그라들자 차분한 목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렸다. 어떤 여자가 그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 나 때문에. 순식간에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그가 괴물 취급을 받아 버린 건가? 그 남자가 우리에게 비명을 지를 때 그대로 도망가는 걸 막았어야 했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그들을 막아서야 하나? 그들은 내 말을 들어 줄까? 생각이 귀를 막아 그 여자가 그 뒤에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고,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온 그의 모습은 얼핏 보면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몸이 새까만 색이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인간이었다면 분명 치명적이었을 상처가 가득했다. 당황해 말을 할 틈도 없이 그가 말했다. 인간들이 찾아왔다고,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너를 팔아넘겼으니 이제는 나가야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려는 나에게 그는 말로 된 칼을 던졌다. 이렇게 사는 거에 불만은 없었어, 그저 나와 같은 사람들의 삶이 잠깐 궁금해졌기 때문이라고. 인간들이 당신에게 뭘 어떻게 했는지는 당신이 안 알려주지 않았어? 나에게

게 그런 모습을 투영했었던 거야? 내가 자꾸 화내서 싫어졌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나를 밀어내려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집을 나가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서러움이 폭발해 버렸고, 나는 평평 울면서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

내가 인간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랬다는 걸 안다. 정을 때라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도 안다. 그치만 그렇게까지 막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진심이 어떻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 진심은 상대방에게 가 닿지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집 밖에는 인간들이 많았다. 맨 앞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다. 듣기로는, 그 여자가 나의 엄마라고 한다.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 나를 숲 속에 두고 와야만 했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숲 속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해서 왔더니 15년 전 버렸던('엄마'는 두고 왔다고 말했지만, 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내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를 제대로 보는 건 지금이 처음이면서? 나는 이 말이 변명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나를 안아줬을 때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나한테까지 옮겨 오지 않는 느낌이 들어 그 자리에 굳어 있기만 했다. 엄마는 이제는

압박받지 않을 정도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으니 너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면서 진짜 집으로 돌아가자고 나를 이끌었다.

“...그렇게 보았던 인간의 세계는 책에서 보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당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는 적응하는 데만 7년이 걸렸답니다. 제대로 된 ‘내 이름’을 받고, 책에 나와 있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예방 접종을 하고, 온갖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이 제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걸렸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당신이 우려했던 대로 제가 ‘괴물의 아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노래로, 책으로, 여기저기에 퍼지는 이야기들로. 엄마는 그 ‘괴물’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화를 냈었어요. 아마 제가 괴물을 옹호한다면 괴물을 죽인 영웅에서 한 가정을 파탄낸 위선자가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내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느니, 세뇌를 당했다느니 하면서 이상한 아이로 만들려고 했지만 괴물에 대한 것만 제외한 다른 면에서 완벽한 모습만

을 보여 주니 입을 다물더군요.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인간들은 전부 당신이 말한 것과 똑같더라고요. 어찌겠어요, 저는 앞으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될 텐데. 최대한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숲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인간들이 개발한답시고 숲을 밀어버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의 집은 시간에 밀려 바스라져 갔지만… 그래, 집 앞에 있던 당신은 다정한 모습 그대로 동상처럼 굳어 있었네요.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건가요? 물어 봐도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나 슬펐을 줄이야. 아참, 일기는 잘 읽었어요. 이걸 보여 준다면 그들도 내 말을 들어 줄 지도 모르죠. 적어도 어린 아이들만큼은 내 말을 믿어 줬으니까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그와 동시에 정말 나쁜 사람. 나는 당신의 마지막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며 당신을 미워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의 당신 또한 기억할 거예요. 그걸 떠올리며 당신을 사랑하겠죠.

사는 곳을 몇 번을 옮겨 다닌다고 해도, 내 집은 언제나 여기일  
거예요.

나의 유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명지르는 수도꼭지



약간 작지만 깨끗한 집에, 지혜라는 당찬 어른 한 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자신만의 집을 꼭 갖고 싶었던 지혜는 기쁜 얼굴로 여기서 잘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놓고, 책과 여러 도구들을 제자리에 정리하자 지혜의 ‘마음’은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한 뒤, 지혜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지혜의 말처럼, 모든 것은 다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혜가 씻기 위해 샤워기가 연결된 수도꼭지를 틀기 전까지는요.

# 1. 문제점

# 1. 문제점

또, 또 시작이다! 드디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해서 편하게 발 뻗고 사나 했더니, 이제는 수도꼭지가 말썽이라니! 대체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은 대체 언제쯤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집 볼 때만 해도 멀쩡했었잖아. 왜 내가 오자마자 이렇게 돼 버린 거지? 또 나한테만 발휘되는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거냐고! 분명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냥 물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다. 좀 오래 틀어놓으면 수관이 덜덜 떨려서 그것 때문에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그 때문에 별 문제 아니겠지 하고 수도관 수리도 안 하고 있었더니 점점 소리가 나는 때가 찾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애 때문에 씻을 때마다 아주 고역이었다. 소음은 물론이고 어떨 때는 비명소리에 맞춰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반복하니 아주 죽을 맛이였다. 수도관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 거금을 들여 업체까지 불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여전히 그대로인 수도꼭지 뿐이었다. 그 때 이후로 모아 뒀던 여유금이 다 사라져서 수도꼭지를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샤워기가 연결된 수도꼭지만 그렇다는 것과 이웃분들이 우리 집을 찾아 오거나 고성방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도꼭지 하나에만 신경 쓸 여력은 없었다. 바로 내일이면 2학기가 시작된다. 졸업 학년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므로 취업 준비도 틈틈이 해 뒀야 했다.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타내지 못하면 알바 시간을 늘려야만 해.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이번에 수도꼭지 때문에 여유금이 사라진 만큼 이번 학기는 더더욱 돈이 필요하다. 나는 과목별로 필기할 노트 7권을 가방 안에 쑤셔 넣고 잠을 청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가 떠오른다. 내 생물학적 정자 제공자는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철 지난 옛날의 고정관념만 고집하려 드는 짝 막힌 사람이었고, 틈만 나면 학교에 다닐 때는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

히 살아야 한다, 20살에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며 직업은 사자 직업이 최고이고 여자는 최대한 빠르게 결혼해서 가정과 남편과 아들을 위해 자아를 버리고 헌신해야 한다, 등등 아주 시끄럽게 굴어 대곤 했다. 정작 본인은 말한 것들 중에 하나도 맞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서 늘 저렇게 떠들기만 했었지. 엄마는 그런 사람을 버티지 못해 이혼을 요구했으나 그 짝 막힌 사람이 그걸 들어 줄 리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잠에 들기만 하면 말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보니 제대로 잠들지 못한 적도 많았다. 아이가 들으니까 그만하라는 말에 애를 방패막이로 삼는 거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곤 했었지. 더 버티지 못한 엄마는 도망갔고, 그 모든 것이 내게로 향하게 되었다. 아주 어릴 때라 나에게는 힘이 없었고, 설 틈 없이 공부와 공부와 공부만 하다가 3학년이 되어서야 몰래 모아 뒀던 돈으로 겨우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니 나는 이제 자유나 다름없는 몸이었다. 그런데, 저놈의 수도꼭지가...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생각하지 말자. 내일은 1교시 수업이니까. 생각이 푹 끊기자 곧바로 잠이 밀려왔고, 나는 그대로 잠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나이가 꽤 있는 할머니였다. 집 구조를 보아하니 내가 들어오기 전에 살던 할머니였나 보다. 나는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 오랫동안 부엌에 서 있었던 모양인지 어깨에, 허리에, 무릎에, 손목과 손가락까지 아주 성한 곳이 없을 지경이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니까 더 그랬겠지. 이제 보니 온갖 나물에, 불고기에, 잡곡밥까지 아주 진수성찬을 만들고 있었네. 둘이 먹을 양이었던 걸 보니 한 명이 더 같이 살고 있었나 보다. 이쯤 되면 힘들었던 게 이해가 간다. 엄마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나는 두 사람분의 밥을 차려야만 했고, 나까지 집을 나오고 나서는 내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어서 잘 안 먹거나 사 먹곤 했었지. 이제는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못 하게 생겼지만. 능숙하게 식탁을 차린 뒤 나는 밥 다 됐으니 나와서 식사하라고 소리쳤고, 곧이어 안방에서 깡마른 할아버지 한 명이 나와서 식탁에 앉았다. 게걸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나도 밥을 먹으려고 했으나, 곧바로 할아버지가 내 손을 탁 소리 나게 때렸다. 어디 서방님이 식사하시는데 여자가 수저를 드느냐는 말과 함께. 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게 이렇게 똑같은 수가 있지? 나는 아빠를 떠올리곤 표정을 씩혔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1인분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의 잔반만 조금 남기고 안방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고, 남은 것들을 처리하는 건 내 몫이 되었다.

이 할머니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 오셨길래 이만 사람의 수발을 들어 주고 있던 거지. 한숨을 쉬며 식탁 위를 정리하곤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할아버지를 지나쳐 내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들어가 파스를 찾았다. 온 몸이 너무 빠근해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그런데 여기저기를 뒤져 봐도 파스 같은 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나가서 사 올 생각으로 문을 열자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우악스러운 손길에 어깨가 짹 잡혔다. 할아버지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오늘은 또 어딜 싸돌아다니려고 그러냐고 물었다. 그냥 파스만 사러 나가는 거라고 해도 믿지 않았다. 판 놈이랑 붙어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말갈지도 않은 소리에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해도 듣지 않았다. 열이 빠져 그대로 굳어 있자 할아버지는 나를 그대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안방의 문이 닫히는 철컹 소리가 들리고 나서, 나는 꿈에서 깬다. 알람이 울리기 3분 전이었다.



끊임없이 비명을 질러 대는 수도꼭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진 지혜는 비명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온갖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도꼭지에 고무줄을 칭칭 감아 놓거나, 무거운 돌로 레버를 눌러 놓는 식으로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 봐도 그 때만 조용해졌을 뿐, 비명소리는 여전히 지혜가 수도꼭지를 쓸 때마다 새어 나와 지혜를 괴롭혔습니다.

지혜는 이 수도꼭지 때문에 잘 될 일도 제대로 안 풀리는 거라며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지혜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수도꼭지를 내리치기도 했지만, 목이랑 손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혜는 수도꼭지를 바꾸기 위해 전보다 더 무리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2. 갈등의 심화

## 2. 갈등의 심화

나는 수도꼭지의 레버를 단단히 누르고 아주 짱짱한 머리끈으로 수관과 레버를 함께 묶어 놓았다. 이제는 찢지 않을 때도 가끔씩 비명소리가 터져 나와서 레버를 단단히 고정해 둘 무언가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고무줄을 썼지만 그건 나중에 찢을 때 다시 풀기가 힘들어서 검은색의 머리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마저 자주 쓰다 보니 점점 늘어나서 제대로 고정을 못할 때가 생겼고, 그 때마다 머리끈을 계속 바꾸다 보니 이번에 쓰는 게 네 번째 머리끈이었다. 한 달 안에 머리끈만 네 번을 못 쓰게 된 게 말이 돼? 지금까지 버린 것만 해도 열 개는 족히 넘기게 생겼다고!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고 있으면 또다시

비명소리가 새어 나온다. 또 시작이야!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울  
분을 담아 수도꼭지를 콧 내리쳤다. 아야!

여름방학의 끝물에 이사를 왔으니까 이 수도꼭지와 함께 한  
시간도 대략 다섯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 더 심해지는 비명  
소리에 어떤 날은 잠을 못 자기도 했고, 어떤 날은 머리를 감지  
못해서 모자를 쓴 채로 등교하고 출근해야만 했다. 그런 생활  
이 반복되자 나는 살기 위해 수도꼭지를 다루는 방법을 억지로  
배워야만 했고, 곧 몇 가지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레버를 잠그고 있을 때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  
규칙은 최근 들어 깨졌다. 믿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잠긴 레  
버에서 소리가 새어 나온 그 날 나는 수도꼭지에 대한 무언의  
신뢰를 와장창 깨트려 버렸다. 원망하듯 수도꼭지를 바라보면  
서 생각했었지. 나는 우리가 나를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야, 라고. 물론 쓸 데 없는 생각이었고 나는 곧 그 생각을 머릿  
속에서 지워 버렸다.

두 번째, 말을 걸면 점점 조용해진다. 믿기 힘들 지도 모르겠  
지만 사실이다. 씻으려고 레버를 열자마자 소리가 터져나왔던  
그 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냅다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더니

잠깐 잠잠해진 적이 있었다. 그 때 진짜로 통하는 줄 알고 그 다음 날에는 살살 달래듯이 부탁했더니 전날보다 오래 잠잠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샤워가 끝날 때쯤에는 늘 그랬듯 비명소리로 끝나지만. 나름 유용한 방법이라 잘 써먹고 있다.

세 번째, 수도꼭지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록 비명소리가 적게 나온다. 나는 썬 죽어도 뜨거운 물로 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찾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다. 추운 날에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온다 이건가. 아무튼, 이 규칙만큼은 적용하기 힘들었다. 특히나 지금은 초겨울이었고 엄제 한 번은 냅다 찬물에 씻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했으니까. 하필이면 그 날이 기말고사를 봐야 하는 날이어서 중무장을 하고 콜록거리며 시험을 봤었지. 기침이 나올 때마다 주변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모른다. 아, 그리고 이 규칙의 연장선으로 수도관이 동파되었을 때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걸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모았던 내 여유금이 또 다시 한 순간만에 사라지고 말았다.

아무튼, 이런 규칙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나는 어느 정도 비명과 함께하는 일상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는 게

덜 힘들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다.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마인데! 게다가 여자 혼자 산다는 건 그 자체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밤마다 가로등 몇 개만 켜진 골목길을 걸어올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럴 때면 그 끔찍한 비명소리가 오히려 반갑게만 느껴졌었다. 일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 이번 학기 들어 겨우 구했던 알바라서 그런지 텃세에 뒷담에, 업무할 때마다 나한테만 별 시덥잖은 말을 걸어서 일을 방해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다. 매니저와 사장은 방관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응이 빠른 편이었으니 어떻게든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었지만.

학교는 또 어떨까. 내 생물학적 정자 제공자 때문에 원하기도 않는 과에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1년을 하기 싫은 공부만 하며 날려 버렸다. 밤을 새 가며 공부했던 탓에 다행히 1학년 성적을 말아먹지는 않았었지만. 2학년 때 몰래 전과를 하고, 조금 힘들긴 했어도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행복했지만, 그것도 여러 상황이 겹쳐지니 귀찮고 성가시기만 했다. 다행히 이번 학기에도 성적 장학금은 받을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수업 외 시간에는 알바만 했기 때문에 과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 힘들었고, 결국 친구는 올해도 한 명도 사귀

지 못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큰 맘 먹고 집을 나왔으면 보란 듯이 잘 살아가야만 한다. 나는 여느 때처럼 집에 돌아왔다. 최근 머리끈 상태가 위태롭더니만, 결국 이 머리끈도 수명을 다했나 보다.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 앞에서부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만해, 나 오늘 종강했어. 좀 쉬고 싶다고. 피곤하단 말야. 그렇지만 수도꼭지 따위가 내 생각을 헤아려 줄 리가 없었다. 그게 오늘따라 그렇게나 거슬릴 줄은 몰랐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나는 수도꼭지의 레버를 냅다 주먹으로 쿵쿵 때리면서 말했다. 그만, 그만, 좀, 작작해!! 주변이 조용해졌다. 잘못 부딪혔던 건지 손가락과 손등에서 피가 났다. 수도꼭지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나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차오르는 울분을 꺾꺾 눌러 담으며, 나는 새 머리끈으로 레버와 수관을 함께 묶었다. 머리끈이 끊어질까 봐 손아귀에 힘이 들어가는 걸 참아야만 했다. 그 날 나에게 목표가 생겼다. 몸이 부숴져라 일하는 한이 있어도 저 빌어먹을 수도꼭지만큼은 꼭 바꾸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꿀 같은 방학에도 힘겹게 일만 하며 지내던 지혜는 하루하루 병들어 갔습니다.

자주 피곤해하고, 몸 여기저기가 쭈시고, 집에 돌아오면 늘어져서 잠만 자곤 했습니다.

그래도 두 달 동안 한참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수도꼭지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였습니다.

지혜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명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신이 났던 지혜는 처음 이사를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지혜는 행복한 기분으로 잠에 들었고, 그날 밤 지혜는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 3. 원인

### 3. 원인

나는 점점 예민해져 갔다. 당연한 일이었다. 사흘 밤낮도 아니고 매주 밤낮으로 일만 하면서 지냈었으니까. 평소에는 주 16시간을 일하고 128만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서 월세 45만원,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까지 합쳐서 대략 5만원, 식비 30만원 정도가 빠져나가고 나면 수중에 남는 여유금은 48만원 뿐이다. 이마저도 휴대폰 비용을 내고 생필품을 사는 데 다 빠져나가지. 게다가 최근에 수도꼭지 때문에 처음 모아 뒀던 여유금까지 다 빠져나갔다 보니까 진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은 뒤로는 결국 일주일에 52시간씩 일하며 돈을 모았다. 자고 일어나면 일하러 나가고, 일하고

돌아오면 씻고 잠들고, 또 다시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몸에 피로가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힘들 때마다 주말은 좀 더 잘 수 있으니까, 세 달만 이러면 되니까, 라는 말로 나를 다독였다. 입시생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그 때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고도 멀쩡했잖아. 게다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쯤 되면 자기세뇌에 가까웠다. 일에 대한 피로를 잠으로 풀다 보니 언제부터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내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갔다. 머리가 자주 빠지고, 편두통이 내 몸의 일부마냥 붙어 다니고, 근육과 체력이 정말 많이 빠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게 되고, 쓸 근육이 없으니 군살이 여기 저기 붙었다. 나중에 가서는 곧 죽을 것 같아 보인다면 걱정을 끼치기도 했고. 다행히 설 틈 없이 일한 결과 다음 달에 월급을 받으면 수도꼭지를 바꿀 수 있는 여유금이 충분히 생길 것 같았다. 드디어 설 수 있겠구나, 고생했다 나 자신. 이제 다음 달 스케줄은 학기 중 쓰는 스케줄로 다시 바뀌 봐야겠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근무지 휴업일이어서 오랜만에 하루 종일 쉴 수 있었다. 오늘만큼은 수도꼭지도 신경 쓰지 말고 자자. 나는 누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잠에 빠

쳐들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10살 정도의 자식이 있는 아주머니였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목과 발목이 아려 온다. 만성 질병이었던 건지 익숙한 듯 고무장갑 속 손목에는 아대가, 발목에는 발목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다. 양손에 낀 분홍색의 고무장갑과 다 젖은 연두색의 앞치마를 보자 왜인지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엄마가 생각나서 기분이 이상했다. 애초에 엄마가 얼굴이 아니라 집안일하던 모습 같은 걸로 기억되면 안 되는 걸 텐데,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달래 같이 양치를 한 뒤, 아이를 재우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남편을 기다렸다. 야근하게 됐으니 먼저 자고 있으라는 문자 기록만 하염없이 보길 몇 시간, 퇴근한 남편을 맞이하며 할 말이 있다고 남편을 거실로 불러다 앉혔다. 그리곤 차근차근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보니 남편의 문자기록과 모르는 사람과 찍은 사진들이었다. 나는 거실 책상에 꺼낸 것들을 늘어놓은 뒤 남편을 추궁했다. 이게 다 뭐냐고. 왜 모르는 사람이랑 연인들이 할 법한 말을 나누고 연인들이 찍을 법한 사진을 찍는 거냐고. 남편의 당황한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그걸 알아낸 거냐고 묻

는다. 이럴 때는 보통 아니라고 해명부터 하지 않나? 나는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당신 회사 동기가 알려 줬다, 여태껏 나랑 아이를 두고 외도를 하며 다녔던 거냐, 최근 들어 야근이 잦아진 게 이것 때문이었냐,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 아빠가 될 자격이 있느냐. 내 말은 끝을 맺지 못한다. 가만 듣던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더니 내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었기 때문이다. 놀랍도록 차분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그래서 어찌라고, 네가 애초에 잘 했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잖아? 힘들게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할 줄 아는 소리가 이런 것밖에 없지? 항상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만 해 댔으면서 이젠 남편 행동에 토를 달아? 남편의 말도 끝을 맺지 못한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이다. 잠들고 나서 네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어두운 밤이었다.

이런 꿈을 꾸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잠을 얇게 자는 편이라 평소에도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이렇게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의 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되는 꿈’을 꾸는 적은 많지 않았다. 다른 꿈들과 다르게 이 꿈을 꾸고 나면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그만큼 기억에도 잘 남았다. 두 번째로 꿰던 꿈에서는 내 또래의 대학생 여자가 되어 있었는데, 어떤 언니와 함께 살

고 있었던 것 같다. 꿈을 깬 시점은 밤이었고, 언니는 그 날 여행을 가서 나 혼자 집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로등 몇 개뿐인 골목길을 지나치자 등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언니와 전화하는 척을 하며 좀 더 걸음을 빨리 해서 집에 들어갔었다. 그러자 내 뒤의 발걸음 소리도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린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집 문을 열었지만, 언제 따라붙었는지 내 뒤를 따라오던 사람이 바로 내 등 뒤에 있었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 나를 힘으로 제압해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사람의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깬었다.

그리고 다시 현재, 나는 이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예전에는 이런 꿈을 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꿈에서의 내가 살던 집은 가구는 달라도 이 집과 구조가 완전히 똑같았다는 게 이상했다. 내가 오자마자 비명을 질러 대기 시작한 수도꼭지와 이 꿈이 연관이 있는 걸까, 만약 있다면 어떤 식으로? 꿈 속에서는 항상 죽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곳의 수도꼭지도 비명을 질렀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어느 새 잠은 다 달아난 지 오래였다. 분명 몸은 아주 지치고 피로했는데도 머리가 뽕뽕 돌아가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 이 문제를 고치면 수도꼭지도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버려서 그랬던 걸까. 너무 오래도록 시달렸다 보니 이제는 수도꼭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 오는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돈을 더 벌어서 상담을 받자니 그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다. 꿈속의 사람들이 만약 실제로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날이 밝으면 집주인에게 찾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  
았다.



이상한 꿈을 꾸 지혜는 집주인에게 찾아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예전부터 남자 혼자만 살 때를 제외하면 방을 빼는 기간이 빨랐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또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예전에 꿰던 세 꿈의 결말들이 차례로 지나가는 꿈이었습니다.

세 꿈에 나왔던 여자들이 지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게 원통해서 잘못된 짓을 했다고.

네가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다고.

우리는 이제 성불할 테니 걱정 말고 살아가라고 말하며 세 여자는 사라졌고, 지혜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날 이후 수도꼭지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 4. 결과

## 4. 결과

나는 일어나자마자 냅다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전 세입자에 대해 물어봤다. 집주인은 자신은 얼마 전에 이 집을 사서 잘 모르겠다며 예전 집주인의 연락처를 연결해 주었다. 다시 예전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전 세입자에 대해 물어 보자, 폰 너머로 들리는 어조가 사뭇 진지해지더니 따로 만나서 얘기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렇게 조금 갑작스럽지만 오늘 바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고, 처음 만나게 된 예전 집주인은 혹시 수도꼭지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냐고 냅다 물어 왔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예전에도 그랬냐는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냈고, 예전 집주인은 시달렸던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웃

으며 이전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세입자는 한 노부부였는데, 할아버지는 의치증이 있어서 틈만 나면 할머니를 못살게 굴었다고 한다. 두 번째 세입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었고, 둘의 사이는 좋아 보였지만 언제 한 번은 집에 경찰이 왔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세입자는 젊은 부부와 열 살 배기 어린아이였는데, 남편이 언제 한 번 아내가 외출했을 때 다른 사람과 애인이라도 된 마냥 알콩달콩하게 집에 초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전부 ‘계약기간보다 이르게 방을 뺐다는 점’이었다.

나는 예전 집주인에게 물었다.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방관했었냐고. 집주인이 답한다. 지금도 제일 후회되는 일 중 하나라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향했다. 또다시 느슨해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된 머리끈을 확 풀어버리고, 늘 그래 왔듯 비명을 지르고 있는 수도꼭지에 대고 말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 줘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의 나는 첫 번째 세입자인 할머니였다. 나는 할아버지에 의해 성하지 않은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든 채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죽었다. 꿈 속인데도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눈 앞이 암전된다. 꿈 속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두 번째 세입자인 대학생이었다. 나는 집안을 습격한 스토커에 의해 몸의 뼈 여기저기가 으스러진 채로 죽었다. 이상하게도, 고통이 생생히 느껴졌다. 당신들은 이 괴로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얼마나 살아 왔던 건가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꿈 속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세 번째 세입자인 아내였다. 나는 내 목을 조르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죽었다. 사람은 죽어도 청력은 남는다고 했던가. 죽은 내 귓가에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다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리고 그 모든 꿈의 끝에서, 사방이 흰색으로 바뀌었고 꿈에서 봤던 세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울었다. 분해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수도꼭지의 비명소리는 그저 수관이 고장나서 나는 소리도, 나를 짜증나게 만들려고 나는 소리도 아니었다.

이건 억울하게 죽어 갔던 여자들의 한을 품은 외침이었다.

영원히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닿지 못할 외침.

나는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들은 날 꼭 안아 주며 말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네가 시간이 지날 수록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더군다나 우리로 인해 죽는 여자가 더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사라진다고. 이제 우리는 성불할 테니 편하게 살아가라고. 나는 물었다. 당신들이 여기서 사라진다고 해도 셋 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고. 세 여자들은 답했다. 그러면 네가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이름을.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우리를 떠올리며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비극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여자들은 비명소리를 질렀던 때와는 다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시간은 흐른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지난 달에 일했던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는 모아 뒀던 돈으로 수도꼭지를 바꾸었다.

수도꼭지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잃어진 것들의 축제



오늘은 ‘잃어진 것들’이 여섯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는 축제의 날이에요!

‘잃어진 것들’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잃어버려도 찾기 귀찮아서, 혹은 누군가의 강요로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이 아니게 된 물건들이에요.

그러한 ‘잃어진 것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세계랍니다.

‘잃어진 것들’의 축제에서는 자신의 사연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요. 많은 물건들이 모닥불을 둘러 싸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이 때 보다 많은 물건들이 그 사연에 공감하거나 납득하면 상으로 그 물건을 본인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돌려보내 줄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요.

올해 축제에도 이야기를 준비해 온 물건들이 무려 네 개나 된다고 하네요!

네 개의 ‘잃어진 것들’은 과연 어떤 사연을 준비해 왔을까요?

# 1. 축제의 날

# 1. 축제의 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정말 잘 잃어버린다. 버스에 탔다가 잠깐 의자 위에 누워 있던 걸 주인이 못 보고 그대로 내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갔다가 책 사이에 숨어 있던 걸 주인이 못 보고 그대로 반납하기도 하고, 헐거운 주머니 안에 얌전히 담겨 있지 못해서 그대로 주인과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친구는 주인이 전봇대 앞에 놓아 두곤 그대로 안 돌아왔었다지? 주인이 우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발에 채이거나, 밟히거나, 새 주인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주인이 없는 우리는 정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버스나 도서관 같은 커다란 곳은 나중에 우리를 ‘분실물 수거함’이라는 곳에 넣어서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 안 찾아지만 그냥 버려지고 만다. 최후에는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수장을 당하는 결말을 맞게 되겠지.

하늘에서 이런 과정들을 전부 지켜보던 신은 우리가 잃어짐으로써 인간들의 세계에 쓰레기가 늘어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갈 곳 잃은 우리들이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잃어진 것들의 세계’인 것이다. 처음에는 마을 하나만큼의 규모였던 것이 점점 늘어나며 이제는 지구보다 큰 곳이 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주민들을 마을 하나로는 전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였겠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주민들이 너무 많아지자 여기저기서 싸우고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고, 이로 인해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 신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지 당황한 얼굴로 우리들에게 인간의 세계와 비슷한 규칙을 만들어 주었다.

하나, 서로 싸우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

둘, 밤이 너무 늦으면 조용히 해야 한다.

셋,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든 그 주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넷, 아무리 여기가 신이 만든 세계라도 물건들의 수명이 영원할 수는 없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물건들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섯, 서로 종류가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놀리면 안 된다.

여섯, 첫 번째와 다섯 번째를 제외한 모든 규칙은 반 년에 한 번 무효화된다.

우리가 여섯 번째 규칙을 읽고 의아해하자 신은 말했다.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면 일탈을 저지르는 친구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런 친구들이 모이고 모이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거라고. 인간 세계에서는 세 명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모두가 따라하게 되는데 인간들의 밑에서 지내 온 너희는 어떻겠냐고. 우리도 주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반 년에 한 번, 그 하루를 어떻게 쓸 지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는 말과 함께 신은 우리들을 다시 풀어 주었다.

우리들은 다같이 서로를 맞대고 고민했다. 하나뿐인 이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뽕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첫날에는 다들 조용히 지나가며 끝났다. 그리고 반년 뒤 다시 그 날이 찾아왔을 때, 하트 모양의 도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향수병에라도 걸린 건지 갑자기 주인 생각이 난다고. 그 옆에서 한 세트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별 모양 도장 하나가 거들었다. 우리 주인은 특별한 날이면 늘 우리들을 들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우리의 흔적을 꼭꼭 남기고 다녔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물건들도 하나 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 주인은 정말 멋있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게 내 삶의 낙이지!

우리 주인은 상냥하고 푹푹해. 나를 손에 쥐고 정답만 적어내리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우리 주인은 조금 덜렁이지만, 나를 끝까지 못 찾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반 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날은 다 같이 모여 앉아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날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는데, 이야기의 끝은 결국 주인을 다시 찾지 못할 거라는 현실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신이 다시 나타나 가장 많은 물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친구들은 주인에게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심판은 너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내가 맡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들은 당장에 그 제안을 수락했고, 그저 빙 둘러앉아 이야기만 하던 그 날은 어느 새 축제와도 같은 날이 되어 있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던 축음기의 제안이었다. 우리는 아침에는 악기와 축음기, MP3 플레이어와 그 외 음악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들의 도움을 받아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 되면 다같이 모닥불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물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가 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하루에 네다섯개까지만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되었다. 신이 만들어 준 번호표를 뽑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듣고, ‘그 날’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었다.

그리고 오늘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를 할 친구들은 다 낡은 토끼 인형, 팔다리가 맞지 않는 로봇 모형, 새 것 같은 티셔츠, 그리고 녹이 슨 수도꼭지였다. 이런 친구들이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이번 축제 날에는 왜 이 애들이 뽑힌 거지? 그동안은 반짝반짝하고 예쁜 친구들만 나왔었는데!

우리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다 낡은 토끼 인형이 앞으로 나와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다 낚아서 지금도 군데군데 숨이 빠져나오고 있는 토끼 인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아기일 때부터 나를 엄청 예뻐했어요.

침이 묻고 옷이 뜯어져도 괜찮았어요.

더러운 게 묻으면 나를 깨끗하게 씻겨 줬고, 옷이 뜯어지면 튼  
튼하게 고쳐서 다시 입혀 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 위에 날 놔두고 다른 인형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는 점점 낡아 갔고, 여기저기 실밥이 뜯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주인은 내가 망가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주인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침대 위에만 누워 있다가, 짐을 정리하는 날 먼지가 묻고 몸이 뜯어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주인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나에게 대한 걸 전부 잊어버린 듯 망설임 없이 나를 버렸죠.

토끼 인형은 말을 마친 뒤 작게 훌쩍이며 퇴장했고, 물건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 2. 토끼 인형의 이야기

## 2. 토끼 인형의 이야기

나는 소위 말하는 ‘애착 인형’이야. 동글동글한 몸체와 까만 눈, 분홍색의 털. 활짝 웃고 있는 입에 멜빵 바지까지. 평범하게 귀엽고 평범하게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나는 평범하게 한 아이의 물건이 되었지. 나는 행복했어. 모든 물건들이 그렇듯 나한테도 ‘마음’이랄 게 없긴 했지만, 내 자아는 분명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아직 아기였던 내 주인은 틈만 나를 물거나 나를 손에 쥐고 빙빙 돌리거나 옷을 찢어버리거나 하면서 나를 못살게 굴었지만 괜찮았어. 아기들은 선악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건 애정 표현에 가까웠으니까. 좀 더 자라서는 나를 아주 동생처럼 대해 주기도 했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울기도 했었지. 못 말리는 주인 이었다니까?

그런데... 주인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조금 변했어. 집에 돌아오면 침대 위에 있는 나를 꼭 끌어안아 주긴 하지만 절대 나를 보고 웃어 주지 않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반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는 걸까? 그렇지만 나는 아무 힘도 없었어. 물건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는 언제부턴가 나를 안아 주지 않았어. 침대에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그리고 다시 누울 때도. 마치 관상용 벽지가 된 기분이었어. 그 아이가 다시 나를 봐 주면 좋을 텐데. 깨물고, 빙빙 돌리고, 옷을 뜯어도 좋으니까 힘들 때는 나한테 전부 털어 놓아도 좋을 텐데. 아이가 침대에 신경 쓰지 않으니 나는 점점 낡아 갔어. 작은 인형이어서 더더욱 눈에 띄기 힘들었겠지. 침대 위의 물건들에 자주 쓸리다 보니 분홍색의 털은 자꾸만 벗겨져 갔고, 예전에 한 번 뜯어졌었던 곳의 실밥이 풀리기 시작했어. 너는 언제쯤 나를 봐줄까. 언제쯤 나를 구해 줄까. 생각마저도 점점 바스라져 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런 생활이 끝난 건 어느 날 아침이었어.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이런저런 물건들이 갑자기 치워지기 시작하더라고.

듣기로는 오늘이 이사를 가는 날이라서 짐을 정리하는 거래. 나는 기대되기 시작했어. 드디어 주인이 나를 봐 주려나 봐! 그런데 돌아온 건 이게 뭐냐는 말과 버리라는 말, 단 두 마디 뿐이었어. 그리고 나는 여기 오게 됐지. 나는 슬펐어. 나에겐 여전히 ‘마음’ 같은 건 없지만, 내 자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나는 공감을 얻으려고 여기 올라온 게 아니야. 그냥 뿔뿔해서 올라왔을 뿐이지. 이야기를 들어 줘서 고마워.

토끼 인형은 말을 다 마치곤 미련 없이 단상 위에서 떠났다. 그와 동시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는 없었잖아! 게다가 이건 잃어진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진 거잖아, 자격이 아예 없는 거 아냐? 그치만 자격이 없으면 이 세계에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신은 소란스러워진 분위기를 제지하고 두 번째 잃어진 것, 팔다리가 맞지 않는 로봇 모형을 단상 위로 데려왔다.

그렇게 약간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로봇 모형의 이야기

모두들 안녕, 나는 슈퍼봇2라고 한다.

내 주인은 로봇 모형을 모으는 한 남자였다.

팔다리를 포함해 몸통과 머리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주인은 틈만 나면 내 사진을 찍어 뒀고, 나는 그렇게 주인의 옆을 계속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같은 로봇 모형들 말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내 주인은 나와 나를 비롯한 모형 친구의 팔다리를 바꿔 끼우는 걸 즐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조금 힘하게 다뤄져서 연결 부위가 고장이 났다.

지금 내 팔 한 짝이 없는 게 이 때문이다.

주인은 그런 나를 쓸모 없어졌다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더군.

로봇 모형, 슈퍼봇2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인사한 뒤 퇴장했습니다.

물건들 사이에서 남은 물건들도 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계속해도 되겠냐는 말이 들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 3. 로봇 모형의 이야기

### 3. 로봇 모형의 이야기

슈퍼봇 2, 나왔을 당시에는 시장에서 제일 먼저 품절이 되는 초 인기 상품이었다. 정교한 모양에, 높은 퀄리티, 온갖 음성 기능까지. 로봇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부터 아직까지도 로봇을 좋아하는 어른들까지 슈퍼봇 2를 사 갔고, 그렇게 나는 로봇을 수집하는 어떤 성인 남성을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집에는 로봇이 많았다. 나의 선배의 선배의 선배의 선배까지 아주 오래된 로봇 모형들이 가득했고, 나는 그 중 맨 앞에 놓이게 되었다.

주인을 만나고, 그 집에 오고 나서부터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카메라 소리였다. 내 주인은 나를 찍어서 인터넷 사이

트에 자랑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다. 그 외에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소리가 두 번째로 많이 들렸었지. 매일 나를 광이 나게 닦아 주고, 나를 보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곤 했었다. 내 자아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었던 것 같다. 아낌 받는다 는 기분,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었나 보다. 몇 주 정도 가 지나서, 주인은 새로운 로봇 모형을 가져왔다. 새 친구에게 주인의 관심을 빼앗겼지만 괜찮았다. 나를 보며 더 많이 웃어 줬으니까.

문제는 몇 달 정도가 지난 뒤였다. 내 주인은 하루의 대부분 을 방에만 있었는데, 주인의 가족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는 지 주인에게 화를 내곤 했다. 언제 한 번은 방에서 크게 싸웠었는데, 주인의 아버지가 나와 친구들을 가리키며 50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당장 저것들을 버려 버릴 거라고 말했다.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이후로 유리로 된 찬장에 갇힌 채 살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시험이 끝난 듯 주인이 아버지에게 시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51점이었다. 아버지는 마지 못 해 허락을 했으나, 왜인지 주인은 찬장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것에 흥미가 생긴 것 같았다. 나는 그래도 괜찮았

다.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가려 봤자 나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인이 다시 와서 이 문을 열어 줄 때까지.

주인이 다시 문을 연 건 해가 바뀌고 난 뒤였다. 웃는 표정으로 문을 열길래 나는 주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인은 그 표정으로 내 선배들부터 꺼내 갖고, 한참을 있다가 나를 꺼냈다. 책상 위로 선배들이 보였다. 팔다리가 분리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마도. 주인의 말소리가 들려 왔다. 어차피 버릴 거니까 맘대로 해도 상관 없을 거라고. 그저 재미로 팔다리를 바꿔 끼우겠다는 소리였다. 주인은 내 팔을 잡았다. 나는 직감했다.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물건에 불과하니까. 내 관절은 너무 튼튼해서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었고, 짜증이 난 주인은 나를 아예 바닥에 던져 버렸다. 온 몸이 분리되고, 한 쪽 팔은 연결 부분이 망가져 버렸다. 끼워 맞추는 놀이가 끝나자 주인의 흥미가 완전히 떨어졌는지 나는 상자에 담겨 옮겨졌다. 그리고 다시는 옮겨지지 않았다.

로봇 모형은 나 또한 그냥 뽑혀서 나온 거라고 말하곤 빼적

거리며 허리를 숙인 뒤, 단상 위를 떠났다. 술렁임이 더 커졌다. 애도 버려진 물건이야! 잃어진 게 아니라고! 신님, 이대로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온갖 말소리들로 주변이 시끄러워지자, 신은 남은 두 명은 다룰 지도 모른다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고 물건들을 다독였다.

그러나 신의 얼굴에서도 점점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다.



COOL

안녕, 친구들! 내 주인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앞의 두 친구들보다 좋은 이야기일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구!

내 주인은 굉장히 쿨한 사람이야, 늘 멋내고 꾸미기를 좋아했지!

주인 옷장에는 늘 옷들이 가득했고, 그래서 나는 항상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싸워야만 했어!

그치만 그것도 즐거웠어, 어찌다 이겨서 주인이 날 입어 주는 날에는 얼마나 짜릿했는데!

근데 주인은 옷 사는 걸 너무 좋아했어. 끊임없이 옷장에 옷이 들어왔지.

그러다 보니 나랑 다른 친구들이 한 데 뒤섞여서 구석에 뭉쳐 버렸지 뭐야!

언젠가 주인이 누군가의 등쌀에 떠밀려서 옷장을 정리하러 왔었는데, 나랑 다른 친구들이 뭉친 걸 보고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 주더라고!

그 이후로 주인이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서 여기 단상에 오르게 된 거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꿈을 품고!

주인과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물건들은 환호했습니다.

티셔츠는 멋들어지게 인사하며 박수갈채 속에서 퇴장했지만,  
신은 어쩐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 4. 티셔츠의 이야기

## 4. 티셔츠의 이야기

내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 그리고 딱히 중요한 것도 아니지! 주인 녀석이랑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그 녀석과의 첫만남은 완전 환상적이었어! 나는 그냥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진열대에 누워 있었는데, 주인이 날 향해 다가오더니, 이거다! 하고 단박에 나를 집어든 거야! 우리는 그때부터 끝내주는 짝친이 됐어!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의 나는 그저 평범한 티셔츠에 불과했지. 그런데? 주인이 날 입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특별해 보이는 거야! 그걸 입은 주인도 특별해 보였어! 주인이 날 볼 때마다 만족스럽게 웃었던 게 아직도 떠올라, 정말 최고였어... 나는 그렇게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

면서 주인의 아늑한 옷장 안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됐어! 주인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나를 꺼내 입고 외출하는 걸 즐겼고, 나는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

그런데... 주인 녀석은 다 좋은데 과소비가 조금 심했어. 하루가 다르게 옷을 갈아치우고 새 옷을 사고 그러더라고. 뭐, 그래도 나는 상관 없었어! 어차피 그 녀석한테 있어 제일 특별한 옷은 나 하나뿐이었으니까! 주인은 다른 옷을 입다가도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나를 꺼내 입었고,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친구였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 전부터는 아예 옷장에 나를 고이 모셔 두고 있었다니까? 역시 우리 주인은 센스 있다니까~

응? 그런 내가 왜 여기 왔냐고? 하하! 우리 주인 녀석은 과소비하는 거 말고도 건망증도 심한 것 같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옷장에 자리가 없어서 내가 모셔진 자리가 딱딱 좁아졌는데도 치우는 걸 계~속 까먹더라! 그래도 괜찮았어! 그 녀석의 특별한 날에는 항상 내가 함께하는걸! 그런데... 언제 한 번은 그 녀석이 청소하겠다고 옷장 문을 오랜만에 활짝 열고서 나랑 친구들이 한 데 모여 뭉쳐진 걸 다른 데 옮겨 두고 까먹어 버린 거야! 그 중요한 나를 까먹었다니!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그 녀석만의 특별한 친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그래서 난 오늘이 되기만을 소매 빠지게 기다려왔다고. 후훗, 이 정도면 모두들 나한테 공감해 줄 거라고 믿고 있겠어!

티셔츠는 크게 웃으며 모두에게 인사하곤 그대로 단상에서 내려갔다. 모든 물건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이런 날엔 모름지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아주 멋진 거! 앞의 두 물건의 이야기로 인해 착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아올랐다.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간파한 듯한 신만이 복잡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티셔츠를 바라볼 뿐이었다.

기대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고, 남은 수도꼭지가 삐걱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왔다.



앞에 있는 애가 너무 잘해서 나까지 부담되잖아…

나는 뭐, 별 거 없어.

나는 한 곳에 오래 붙어 있어서 주인을 여러 명 만났었는데…

첫 번째 주인은 늙은 사람,

두 번째 주인은 갓 어른이 된 학생,

세 번째 주인은 10살배기 아이의 가족.

그리고 마지막 주인은 두 번째 또래로 보였어.

마지막 주인이 온 시점부터 갑자기 수관이 비명을 질러 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언젠가는 꼭 나를 없애 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세상에서  
네 번째로 무서웠어.

그런데 무슨 일이었을까? 여기 오기 바로 전날에 갑자기 비명  
소리가 똑 끊기더라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여기 오게 된 거야.

재미없는 이야기이지?

## 5. 수도권꼭지의 이야기

## 5. 수도꼭지의 이야기

첫 번째 주인은 좀 많이 늙은 사람이었어. 같이 사는 사람이 못살게 굴었던 건지 내 앞에서 자주 울더라고.

언제 한 번은 같이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덜덜 떨면서 나한테 연결된 샤워기 물을 한참을 틀어 놔었는데, 그 이후로 첫 번째 주인을 볼 수 없었어.

두 번째 주인은 첫 번째 주인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었어. 비슷한 나잇대의 사람이랑 같이 살았었지.

언제 한 번은 같이 사는 사람이 집을 비웠었거든?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때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손을 아주 박박 씻더라고. 그 이후로 두 번째 주

인도 볼 수 없었어.

세 번째 주인은 조그만 애 한 명이랑 요상한 인상의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 내 앞에서 또 우는 걸 보면 그 요상한 남자가 이번에도 주인을 괴롭히는 건가 싶었지.

언제 한 번은 주인이 좀 늦게까지 깨 있었던 날이 있었어. 요즘따라 그 요상한 남자가 밤늦게 나를 찾아오길래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했었지. 그런데... 뭔가 큰 소리랑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푹 끊기더니 또 그 요상한 남자가 들어와서 아주 더러운 거라도 만진 것마냥 손을 씻더라. 그 이후로 세 번째 주인도 볼 수 없었어.

네 번째 주인은... 하아. 성질이 아주 대박이더라고. 내가 네 번째 주인이 들어올 때쯤에 아주 낡은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어, 또 웬 비명소리가 내 수관 안에 찰싹 달라붙어서 계속 소리를 지르길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 주인은 그게 짜증났는지 나한테 말을 걸질 않나, 검은 끈으로 칭칭 묶어 버리질 않나! 물건이 말을 못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저러는 거 좀 짜증나지 않아? ...아님 말고.

...근데 언젠는, 그 주인이 좀 슬픈 표정으로 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목소리를 들려 달라나, 만나 달라나, 뭐라나.

근데 그 날 이후로 마법같이 비명소리가 사라진 거 있지? 야호!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서 바로 날 여기로 보내더라. 젠장!

...뭐, 몇몇 물건들은 눈치챘겠지만, 내가 겪은 건 단순한 ‘짜증나는 일’이 아니야. 대화를 듣기만 해도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었어. 내 주인들은 한결같이 ‘폭력’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 폭력의 현장을 보는 내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나는 물건이고, 인간이 물건 따위의 심정까지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해줄 필요도 없다는 것도 알아. 그치만. 어떤 것이든 지속적으로 폭력이 행해지는 곳에 노출되면 망가져 갈 수밖에 없어. 내가 그 비명소리를 내 목소리 삼아 질렸던 것처럼 말야.

한창 분위기 좋은 거 깨서 미안한데, 이런 이야기도 나는 있어야 한다고 봐. 굳이 신님께서 우리를 보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든 인간에 의해 여기서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좋은 주인만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까. 공감해달라는 소리는 아냐, 적어도. 알기는 해 두라고. 나중에 더 충격받는 일 없게 말야.

수도꼭지는 조용해진 분위기 가운데 유유히 퇴장했다. 사방이 고요였다. 신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다 좋은데 그걸 말하고 바로 퇴장하면 어떡하냐!



모든 잃어진 것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신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주인에 의해’ 잃어진 아이들이구나.  
정을 주고 보호받아야 할 상대를 방치하는 것도,  
그저 자신의 재미를 위해 상대를 억지로 바꿔 놓으려는 것도,  
더 좋은 것만에 눈독을 들이며 오래 같이 지내 왔던 상대를 버리는 것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대놓고 보여 주는 것도 전부 잘못된 행동이란다.  
너희들의 주인은 너희를 스스로 ‘잃어진 것’으로 만들었으니,  
너희가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으나.  
신은 낡은 토끼 인형에게는 새 옷과 완벽한 수선을,  
팔다리가 맞지 않는 로봇 모형에게는 제대로 된 팔다리를,  
가장 많은 공감을 이끌어낸 새 것 같은 티셔츠에게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 줄 새로운 주인을,  
낡은 수도꼭지에게는 힘들면 언제든 말하러 오라는 당부를 전해 주고 떠났습니다.  
축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잃어진 것들은 선물을 받은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 6. 축제의 끝

## 6. 축제의 끝

신은 최선을 다해 가라앉은 물건들 사이의 분위기를 풀어 주기 위해 할 말을 생각했다. 수도꼭지 이 녀석이! 축제 설명을 들을 때 불만스러워 보였던 걸 그대로 두면 안 됐어! 축축해진 손을 뒤로 숨긴 신은 위엄 있는 얼굴을 꾸며 내고 물건들 앞에 가서 섰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너희를 왜 ‘잃어진 것’이라고 하는지 알고 있니? 물론 일차적인 의미는 주인을 잃고 오게 된 것이라서 그렇지.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의 원인이 외부 요소에만 있는 건 아니란다. ‘주인에 의해’ 잃어지는 물건들도 충분히 많지. 귀찮아서, 재미 있어서, 수많은 것들 중 하나라서, 그리고 그저 그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잃어지는 물건들이 특히 주인을 못 잊어서 괴로워하곤 했지. 그치만 아이들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줘야겠구나.

정을 주고 보호받아야 할 상대방을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결국 방치당한 아이의 마음에는 먼지가 쌓이게 된다.

그저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아끼는 상대방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나마 아끼던 것들도 전부 다 잃게 될 수도 있지.

오래도록 같이 지내 왔던 상대방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걸 발견하고 바로 그 쪽으로 다가가 붙으면서도 오랜 친구를 버리는 건 아까워서 계속 여지를 준다면 오랜 친구는 점점 피로해져갈 테고, 그렇게 하나 둘 친구를 잃을 수도 있겠지.

마지막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폭력인 것은 아니야.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억지로 폭력의 현장 속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비명소리처럼 원한들이 들러붙을 수 있어요.

너희들은 착한 아이들이니, 내 말을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선물을 나눠 줄 시간이구나. 자, 오늘의

이야기꾼들을 큰 소리로 맞아 주렴.”

사방에서 큰 소리가 터져 나왔고, 오늘의 이야기꾼들이 모였다. 신은 낡은 토끼 인형에게 그토록 바라던 애정과 관심을 옷으로 엮어주었고, 팔다리가 맞지 않는 슈퍼봇2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새 팔다리와 함께 들려 주었으며, 가장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낸 새 것 같은 티셔츠에게 소중한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불어넣어 주었고, 낡은 수도꼭지에게는 아직도 속에 남아 있을 비명을 털어 주기 위해 언제든지 상담사가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축제는 영원하지 않다. 즐거운 시간은 끝이 난다. 신은 그 사실에 슬퍼해하는 물건들을 위해 축제 시 규칙 또한 만들어 준 적이 있었다. 그 규칙의 마지막 조항은 ‘어떤 물건이 어떤 결말을 맞든 축하해 주며 끝내기’였다. 아쉬운 물건들은 분명 있을 것이다. 이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은 규칙을 정했다. 나중에 물건들이 이 날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이 말을 떠올리며 즐거웠던 나날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은 여러 마음 여러 뜻으로, 하지만 분명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다.

“축하해,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하길!”

네 번째 이야기,  
마음을 지켜 줘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노인들도, 여자도 남자도.  
마음은 언제나 무럭무럭 자라요.  
기쁜 감정도, 슬픈 감정도.  
마음은 아주아주 강해요.  
동시에 아주아주 약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마음은 깨져 버려요.  
아주아주 잘게 깨져 버려요.  
깨진 마음은 되돌릴 수 없어요.  
영원히 되돌릴 수 없어요.



어느 한 동네에, 인공지능 로봇 한 대와 아이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14살 정도의 학생이었고, 로봇은 본래 아이의 보디가드 겸 말상대로 만들어진 로봇이었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부잣집에 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게 된 ‘마음 사냥꾼’으로 인해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은 채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사냥꾼들의 추적을 피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아이와 로봇은 어느 인적 드문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두 번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 1. 두번째 삼

# 1. 두번째 삶

나는 지루하다는 얼굴로 저 멀리 부엌에서 내 아침을 차리는 로봇을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은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항상 오늘은 말하기 전에 생각 먼저 해라, 행동하기 전에 생각 먼저 해라,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생각, 어찌고저찌고, 웅알웁알. 이만큼 했으면 같은 말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좀 학습하면 안 되는 건가? 인공지능에 선택적 학습 기능이라도 있어?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 보통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냐 이 말이야. 속으로 불만을 툭툭 내뱉으며 가만히 턱을 괴고 앉아 있다 보면 로봇이 음식을 들고 내 앞으로 다가온다. 오늘도 똑같은 반찬에서 국만 바뀐 식단이다.

아 줘! 나는 다이어트할 생각도 없는데 영양성분을 고려해서 만든 식단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한 번쯤은 자극적인 거 하나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불만을 쏘아 댔다간 내 말 한 마디마다 반박하는 말이 아주 무미건조한 톤으로 올려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잠자고 입을 다물고 아침을 입에 밀어넣었다.

“오늘은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대로 가다간 예상 출발 시간에서 5분이나 벗어날 것으로 예측...”

“아, 시끄러! 다 먹었다고!! 가방이나 준비해 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권장량에 맞추려면 좀 더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 마디를 안 진다. 이럴 때는 무시가 답이다. 나는 그 뒤로도 뭐라뭐라 이어지는 로봇의 말이 안 들리는 척을 하며 이제부터 새로 다니게 될 학교의 교복 소매에 팔을 쑤셔 넣었다. 이제부터 뭐든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에 우울해져 멍기 적거리고 있으면 칼같이 방으로 찾아온다. 나는 프라이버시라

는 개념을 삭제하기라도 한 거냐며 로봇한테 고함을 지르곤 그대로 로봇을 지나쳐 가방만 홀라당 낚아채고 현관을 나섰다. 등 뒤에서 오늘도 조심하고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험악하게 뒤를 돌아보았다. 로봇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짜증나는 자식. 전학 온 첫 날부터 일이 제대로 안 풀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런 시골 마을로 전학을 오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복잡한 사정이 있다. 나는 원래 잘 사는 집의 외동딸이었고, 학교도 부자들이 다닐 법한 곳에 배정받아서 교복까지 이미 다 준비된 상태였다. 나랑 같이 사는 그 깡통은 원래 내 보디가드 겸 말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했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보러 오지 않는 엄마아빠 대신 나의 보호자이자 주 양육자이자 충실한 친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집어 넣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못된 선택인 것 같다. 그 지능을 나한테 잔소리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아무튼, 부잣집의 가족이 으레 그렇듯 우리 가족도 질 나쁜 사람들에게 자주 노려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운이 안 좋아서 엄마도 아빠도 죽었다. 왜 이렇게 차분하냐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니까 좀 봐 줘. 그 ‘마음’ 사냥꾼들이 이번에

는 아예 때를 지어서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날은 정말 별 거 아닌 날이었다. 나는 가정교사한테 수업을 받고 있었고,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깡통은 내 뒤에서 내가 졸지는 않는지 감시나 하고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도망가라는 경호원의 다급한 말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아가씨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뒤에 나타난 놈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쓰러지는 것까지. 모든 게 굉장히 갑작스러우면서도 빠르게, 그와 동시에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그 직후 깡통이 나를 낚아채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달아났고, 나는 그렇게 하루만에 엄마와 아빠를 잃었다. 아주, 허무하게.

깡통은 나한테 정황을 살펴 보니 ‘마음’ 사냥꾼들이 아주 폐거지로 몰려와서 쪽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며, 그 많은 경호원의 방어가 뚫렸다는 건 그들 하나하나가 매우 위험한 전력이라는 뜻이고, 경호원이 굳이 내 수업을 방해하면서까지 대피하라고 한 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그 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줄만 알았다. 그걸 말하는 깡통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건조했으니까. 깡통은 이 정도의 ‘마음’ 사냥꾼이라면 분명 나를 노리고 있을

테니까 반드시 개인행동하지 말고 자기 옆에만 붙어 있으라고 했다. 공포에 질렸던 나는 의외로 순순히 그 말을 따랐었다. 그렇게 여러 마을을 전전하다가 이 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기적이고, 음침하고, 뭘 이상한 괴물이 나온다는 미신이나 믿는 이 마을에.



아이는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음’은 크기가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커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남들의 노력도 불구하고 스스로 남들을 밀어내기에 급했습니다. 들키면 ‘마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밝히는 꼴이었으니까요.

로봇은 이를 알고 아이를 회유하거나 교육시키는 등 아이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 2. 나의 마음

## 2. 나의 마음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 주려고 한다. 여기 쓰인 고유명사 때문에 뭘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키우거나 아끼면서, 때로는 낭비하면서 살아간다.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일단 세간에 알려진 정의는 ‘뇌의 감정 영역이 따로 떨어져 나와 심장 부근에 자리를 잡은 무언가’이다. 사전적인 정의마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 나중의 누군가에게는 세계 몇 대 미스터리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

는 모양이다. 아무튼, 이 ‘마음’이라는 것에는 상당히 짜증나는 특징이 여러 개 있다.

첫 번째, 완전히 아기일 때는 콩알만 한 형태로 몸 속에 있다  
가, 생후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몸 밖으로 꺼낼 수 있  
게 된다. 물론 이론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아기일 때의 ‘마  
음’이 꺼내어진 기록은 없다고 한다. ‘마음’을 꺼내면 심장 부  
근에 뉴런과 비슷한 형태의 줄로 연결이 되며, 다시 집어넣으  
면 사라진다. 어떻게 꺼낼 수 있냐고? ...몰라, 그냥 심장 쪽에  
손 대고 꺼내려고 하니까 꺼내지던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두 번째, 이 ‘마음’이라는 건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있다. 폭신하다 못해 모래를 넣어놓은 듯 으스러지는  
질감의 검은 공 모양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딱딱해서 프레  
스기 사이에 넣어 봐도 안 부숩질 듯한(물론 프레스기 사이에  
‘마음’을 넣어 본 기록은 없다고 한다.) 하얀 별 모양 마음이 있  
기도 하다. ‘마음’의 재질이 약한 사람은 성격도 유약하고 무른  
편인데, ‘마음’은 물리적인 힘으로는 부숩지거나 으깨지거나,  
아무튼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유한 성격이라

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한다.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심지어 이거, 먹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먹는 순간 바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냥 생각의 차이인가 보지.

세 번째, 자동차가 그 위에서 굴러 가도 안 깨지는 마음은 ‘감정’에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기쁨, 슬픔, 환희, 좌절 등 다양한 감정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커지지만, 어른에 가까워질 수록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며, 결국 완전히 어른이 되는 순간 아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깨져 버리게 된다. 이걸 내가 딱히 겪어 본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감정이 지나치게 과해도 금이 갈 수 있다고 한다. 기쁜 게 과해도 금이 갈 수 있다고? 도통 이해가 안 된다니까.

네 번째,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서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뺏을 수도 있다. ‘마음’이란 연결된 뉴런 같은 실은 진짜 약해서 순간적인 힘을 모아 확 끊는다면 끊어지기 쉽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끼리 ‘마음’ 가지고 장난치다가 한쪽이 장난으로 뺏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마음’을 뺏겨서 ‘마음’이 사라져 버린 사람은 그대로 죽는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 없이. 그래서 그 때 ‘마음’을 빼앗긴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

버렸고, 뺏은 아이는 충격을 받아 바로 ‘마음’이 깨져 버렸다고 했었지. 안타깝긴 해,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이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후로, 아이들은 매사에 주눅들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가 더 늘어나게 됐다고 한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은 뭣도 모르고 아이가 암전해지니 좋다는 말만 해 댈 뿐이었다. 날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려나. 뭐, 엄마아빠도 그 ‘마음을 빼앗겨 죽은 사람들’이니 지금 으로서는 알 수 있을 리가 없겠지.

다섯 번째, 이 ‘마음’이라는 건 자라면서는 감정을 먹으면서 자라고, 깨진 뒤에는 우리한테 감정을 먹인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이 깨진 뒤로는 깨지기 전처럼 더 자랄 수 없는데, 그 때부터는 이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 조각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기뻐하는데에는 ‘마음’ 5조각이 들고, 화를 낼 때에는 2조각이 든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말에 엄마는 ‘어른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 거라면 나는 어른 되기 싫은데. 툭툭거리면 세상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는 법이라는 말이 돌아오곤 했었다.

나는 이 세상이 이따구로 돌아가는 게 전부 저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은 필연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깨지지 않게 노력해 온다고 해도 꼭 어느 한 부분에서 걸려서 부숴져 버린다.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아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조각들을 지키는 데 남은 인생을 몽땅 바쳐 버린다는 것이다!! ‘마음’을 아끼려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삭막하고 기계 같은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 해 왔어도 웃으며 칭찬해주지 않는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못 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슬픈 일이 생겨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저 무표정, 무감정, 무관심. 인형처럼 아이들을 대하고 어른 대접 받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힘이 없다. 어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어른들이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음’ 조각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종극에는 그대로 따라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다 보니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깨져 버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평균적인 ‘마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현재의 사회이다. 이런 사회도

사회라고 어찌저찌 돌아가긴 한다.

그러니 나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은 5살 이후로 성장을 멈췄고,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 봐도 더 커질 것 같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학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도 나의 ‘마음’은 기쁨이나 행복보다는 불만과 짜증 같은 감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고, 덕분에 나는 전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전학생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진 몇몇 애들이 오긴 했었지만 얘기 몇 마디 나누고 나니 금방 떨어져 나갔었지. 당연하지, 첫 마디부터가 “뭐야? 중요한 용건으로 온 거 아니면 썩 꺼져”였고, 뭐만 하면 남 탓에, 그냥 좋게 말하려는 생각조차 안 했었으니까. 나는 오히려 그 쪽이 더 편했다. 아니,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밀어냈다는 쪽에 가까우려나.

사람은 귀찮다. 가까이 지내며 내 ‘마음’은 아주 작고 초라하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를 싹 바꿔서 그걸 약점으로 쥐고 흔들 어떨 지도 모르지.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전부 깨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을 키우기 위한 성실한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도 없어졌다.

깡통은 내가 걱정되기라도 했는지 틈만 나면 이것저것 들고 오면서 내 ‘마음’을 키우려고 했었지만, 사람한테도 동하지 않던 ‘마음’이 깡통 하나로 인해 움직여줄 리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곧 깨져 버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로봇이 살던 집에 마음 사냥꾼들이 들  
이닥쳤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빼앗아 얻은 재산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걸까요?

로봇이 열심히 사냥꾼들을 잡고, 제압했으나 아이는 속수무책  
으로 붙잡혔고, 아이의 ‘마음’은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이가 마음이 있던 곳을 부여지며 절망하고  
있던 그 때였습니다.

### 3. 마음 사냥

### 3. 마음 사냥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설명을 조금 해 주려고 한다.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나 자주 언급되는 ‘마음’ 사냥꾼이라는 건 또 뭐에 쓰이는 단어냐? 라는 생각이 들어 버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을 테니까. ‘마음’은 감정을 먹으면서 크고, 깨져서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먹인다고 했었다. 그리고 ‘마음’과 사람들의 연결고리는 아주 약해서 순간적인 힘에 끊어져 버릴 수 있다고도 했었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은 ‘마음’ 조각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도 했었지. 이쯤 되면 감이 올 텐데, ‘마음’ 사냥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다가 파는 범죄자들이다. ‘마음’은 그 특성상 귀하게 여

겨지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도 엄마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니까. 미리 말하겠지만, 우리 가족은 합법적으로 고인의 ‘마음’만 거래해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범죄자라거나, 그런 생각은 얼른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좋을 것이다. 아무튼, ‘마음’을 뺏긴 사람은 그대로 죽어 버리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마음’ 사냥을 살인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이미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막는 건 역부족이라고 한다. ‘마음’ 사냥꾼들은 대부분 개인행동을 하지만 드물게 떼로 모여 규모가 큰 곳을 습격하기도 한다. 내 경우가 딱 그랬다.

그날도 정말 별 거 아닌 날이었다. 평범한 일요일이었고, 나는 깡통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밀린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깡통은 변함없이 내가 탄짓하지는 않는지 지켜보다가 다시 점심을 준비하러 나갔고. 그러다 갑자기 바깥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 마을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크게 소리쳤다. ‘마음’ 사냥꾼들이 대거 출몰했으니 다들 어서 피하라고.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나를 그 때처럼 깡통이 낚아채서 빠르게 마을에서 벗어

나려 했다. 그러나 ‘마음’ 사냥꾼들은 이번에도 떼로 몰려 와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갈취하고 있었다. 역센 손아귀로 심장을 뜯어내듯 ‘마음’을 뜯어 가는 사냥꾼들,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다 곧 축 늘어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사냥꾼들을 피하며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마을 이장의 손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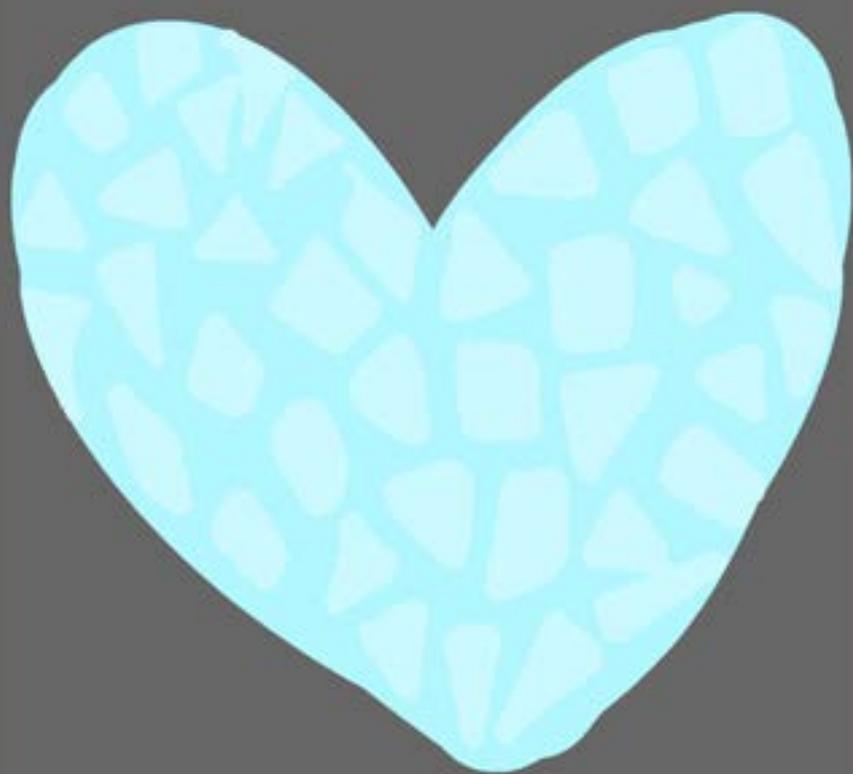
모든 것이 그때처럼 굉장히 갑작스러우면서도 빠르게, 그와 동시에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온갖 무기를 들고 오는 사냥꾼들과 도망가는 마을 사람들이 한 데 뒤엉켜 사방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는 급하게 대피하다가 그만 깡통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마음’ 사냥꾼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서, 내가 휘청거린 잠깐의 틈조차 놓치지 않았다. 나는 금세 모르는 사람의 손에 짐짝처럼 들려 사냥꾼들의 무리 쪽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나는 이 얼굴들을 안다. ‘그 날’에 우리 엄마와 아빠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다. 공포가 온 몸으로 퍼지는 게 느껴졌다. 멀리서 깡통이 사냥꾼들을 전부 제압하고 나를 향해 달려 오는 것이 보였다.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했던 것도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내 입모양을 읽은 건지 깡통은 달리는

속도를 높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사냥꾼들은 우악스러운 손길로 내 심장 부근을 움켜쥐었다. 있는 힘껏 저항했지만 소용 없었다. 나는 그렇게 엄마아빠가 죽었던 그 날 이후로 한 번도 꺼내 보지 않았던 내 ‘마음’과 다시 마주했다. 작고, 탁한 색의,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내 ‘마음’. 사냥꾼들은 이따 ‘마음’을 가지고도 잘도 살아왔다며 나를 조롱했고, 이 정도라도 돈은 된다면서 그대로 그 ‘마음’을 뜯어가 버렸다. 이 모든 게 10초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다. 순간 심장이 꿰뚫리는 듯한 고통이 내 머리를 짓누르고 간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에 내 몸이 으스러지는 것만 같은 감각이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 그렇구나. 왜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금방 죽어버렸던 건지 이제 알겠어. 이 고통은 절대로, 절대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고통은 가라앉지 않는다. 식은땀이 흐르고 벌어진 입에서 뭇지 모를 소리가 흘러나온다. 깡통이 나를 둘러싼 사냥꾼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땅 위에 축늘어진 나를 향해 달려온다. 이 녀석한테서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불안정한 목소리가 출력된다.

나는 무어라 말하려고 했지만 고통에 숨이 막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이 있던 자리만 부여잡고 있을 뿐이었다.



로봇은 자신의 코어 부분을 열어서, 왜인지 인간의 ‘마음’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아이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 ‘마음’ 때문에 부품이 고장나서 오래 버틸 수 없으니 이걸 받고 세 번째 삶을 살라고.

아이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마음’은 인간들에게만 생겨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당황도 잠시, 로봇의 말을 들은 아이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로봇까지 잃으면 자신은 마지막 남은 유일한 가족마저 잃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음 사냥꾼들이 어느 샌가 아이의 뒤를 따라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봇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살고 싶으면 잡아야 한다고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로봇의 ‘마음’을 받아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로봇의 ‘마음’을 통해 로봇의 진심을 알게 된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오만한 성격을 바꾸고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6

## 4. 너의 마음

## 4. 너의 마음

끔찍한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 심장을 뽑아 놔도 이만큼 아플까. 이 와중에도 죽지 않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걸 보면 내 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튼튼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 아직 아무 것도 하지 못했는데. 내가 착하게 살지 않은 대가가 이것일까? 아니면 엄마아빠랑 같이 죽지 않고 나 혼자만 도망친 대가일까? 아니면 마음을 제대로 키우지 않은 대가? 깡통 말을 듣지 않고 막 살아온 대가? 뭐가 됐든 지금 와서 생각해 봤자 의미 없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몸이 으스스해지는 고통이 전부 머리로 가고 있는 기분이야. 숨조차 점점 열리는 게 느껴진다. 이 와중에도 제대로 의식

을 붙잡고 있는 게 기적일 정도였다. 죽기 싫어. 이대로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아!! 무의식이 크게 외쳐 머릿속이 울린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된다면 차라리 죽어 버리는 게 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비집고 나왔다. 오 늘만큼 머릿속이 복잡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죽기 싫어, 그 치만 아프고 싶지 않아, 그치만 죽기 싫어, 죽는 게 나을 것 같 아. 시끄럽고 영양가 없는 말싸움이 반복되다가, 돌연 뚝 끊어 졌다. 깡통이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깡통은 내가 괴로워하는 동안 나를 몇 번이고 불렀던 것 같 다. 여러 번 불러도 답을 안 하니까 목소리가 저렇게 커지지. 깡통은 이 와중에도 내게 말했다. 저기서 마음 사냥꾼들이 다 시 오고 있는 것 같다고. 아마 아직까지 죽지 않아서 무언가 더 뺏어갈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의 출력이 불안 정하다. 당황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마음’이 없으면 감정 표 현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또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애가 인간을 흉내내서 다급하다는 걸 알릴 정 도면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몸이 고 통이 아닌 공포로 떨어져 왔다. 이상하게도, 평소에 질리도록 듣 던 그 짜증나게 차분한 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차라리 이건 다

꿈이라고 질책이라도 해 줘, 평소처럼 늦었다고 잔소리라도 해 줘. 평소처럼, 그냥 일상을 보내던 중에 발생한 작은 사고인 것처럼 여겨 주면 안 돼? 그러나 깡통은 단호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고, 심각하다는 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그 떨리는 목소리가 말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행동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뿐이었다.

깡통은 나를 한 팔로 들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꺼낼 때처럼 오른손을 심장이 있을 법한 부근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문이 열리듯 손을 댄 부분이 서서히 양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 든 걸 본 순간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어찌나 놀랐는지 아픔마저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보통 로봇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에너지 코어 대신에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하얗고, 유리나 보석 같이 빛나는, 투명하고 단단한 ‘마음’이었다. 깡통이 그걸 꺼내자 열려 있는 부분과 ‘마음’을 이어 주는 실이 길게 늘어졌다. 모형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깡통은 그 ‘마음’을 들고 내게 말했다. 이걸 가지고 가라고.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로봇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외에 아무 것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은 여전히 아프고,

눈 앞의 이 로봇은 영문을 모를 말이나 해 대고. 그것 때문이었을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점점 ‘죽기 싫어’ 쪽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로봇은 떨리는 눈을 한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건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의 로봇이 되고 나서부터 제 기체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생각하고 생각해낸 결과... 이건 아가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아가씨의 말, 행동, 표정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원인 또한 예측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에 이르고 나니 이만큼이나 커져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아가씨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로봇에게 있어 이 ‘마음’은 전혀 소용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마음’은 제 에너지 코어를 흡수해 점점 커지면서 제 안의 부품들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점점 저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져가십시오. 저에게는 저를 망가트리는 것일지 몰라도 지금의 아가씨에게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 싫어, 내가 그걸 가져가면 너한테는 망가진 부품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냥 망가지는 거라고! 네 주인을 홀로 남겨 둘 셈이야? 보디가드로서의 너의 의무를 지켜야지!!”

“이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가씨의 목숨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지만... 이 ‘마음’은 아가씨를 걱정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내보내고 있군요. 저는 아가씨를 걱정해서 이러는...”

“시끄러, 시끄러!! 하나도 못 알아들을 소리 하지 말고 도로 가져가! 혼자 살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을 거야, 혼자만 남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단 말야!! 가지 마, 지금 나한테는 너 말고 다른 가족이 없다고...”

로봇은 말이 없었다. 안드로이드가 아닌 평범한 로봇이라 표정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왜인지 느껴지고 있었다. 그치만 나는 계속 고집을 부릴 생각이었다. 어리석고 답답하다고 해도 나는 정말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걸.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 이쪽으로 달려오는 듯한 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로봇이 나를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표정을 읽을 수 없었

지만, 나는 그가 절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내가 너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다고? 어릴 때야 착한 척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냥 평범하고 철 없는 아이일 뿐인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마을 숲의 깊숙한 곳까지 다다르고 나니 남은 건 거대한 강이었다. 그 말인 즉슨, 로봇인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여기가 끝이라고. 더 도망칠 수 없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한다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나 보다. 그는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내게 건넸다. 아까보다 단호해진 듯한 소리가 출력되고 있었다.

“아가씨, 잡으세요. 잡아야 해요. 살고 싶다면. 아니면 차라리 저를 위해서라도.”

지극히 인간다운 그 소리에 나는 고통이 아닌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이별하고 싶지 않았어. 아무리 귀찮고 짜증나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그렇지만 시간이 없었다. 바로 뒤까지 기척이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마음을 집는 순간, 온 몸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여기서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이 ‘마음’까지 뺏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달렸다. ‘마음’이 사라지자마자 몸체 곳곳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는 이 강을 따라 내려가면 멀지 않은 아래쪽에 큰길이 있을 테니 그곳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 그의 말만 믿고 강에 몸을 던졌다.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끝까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가 웃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내 세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마음’은 내 어둡고 음울한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 나를 볼 때의 기쁨, 내가 웃어 줄 때의 환희, 나를 걱정하여 생겼던 불안감. 모든 것이 나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마음’이 있는 부분을 부여잡았다. 앞으로는 이 ‘마음’을 잘 키워 볼게. 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다시금 전학을 가게 된 새로운 학교에서, 나는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들을 향해 웃어보였다.

“만나서 반가워, 나는 세겸이라고 해.”

# 작가의 말

# 작가의 말

세상에는 많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만큼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영원히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채 잊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낭만주의 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속은 염세주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동화 같은 글을 쓰고 싶어도 막상 글을 쓰다 보면 어둡고 허무하며 교훈조차 남지 않을 글만 쓰게 되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이, 제 이야기들이 보다 오래 살아가서 먼 미래에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허황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낭만주의자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할 회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허무하며, 교훈조차 남지 않는 글이지만, 나중에 다시 나를 되돌아봤을 때 이 이야기와 비교해 성장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공들을 위하여,  
최수정 드림

# 나에게서 너에게로 -From I To U-

펴낸날 | 초판 1쇄 2024년 12월 18일

지은이 | 최수정

편집 | 최수정

디자인 | 최수정

펴낸곳 | 매실나무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 13길

전화 | 010-2331-8724

이메일 | spinalove1103@gmail.com

값 11000원

파본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괴물은 어떻게 다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매일매일 비명을 지르는 수도꼭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에 값이 매겨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본 인쇄물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